朝鮮日報 夕刊 十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效果本位 藥品直輸入商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上海攻略戰은終了 南京攻防戰鬪開始

崑山太倉을第一戰線으로 中支戰局의第二段階

【上海十三日發同盟】大場鎭의一角이버서 潰滅하야 玆에上海附近戰에敗北된 支那軍은 揚子江岸近의 敵軍은 總崩潰로 敗退하야 오로부터 南市에至하는 約蜒七十粁에亘하야 劉河、嘉定、南翔、江橋鎭等의 平地要害라고도할 戰陣에依하야 兵力三十餘萬을 擁하고 我軍을邀擊하려고하고잇든데 電光石火와가티 敵의腹背를찔르고 上陸한 新銳上陸○○部隊는 敵을左右로부터 挾擊하야 敵陣은 右翼方面으로부터 重壓을바다 全戰線에亘하야 大混亂을 招來하야 南市로부터 次第로崩壞하기 始作하는데 江浦鎭南翔의 主陣地는 서로뒤이어 陷落되고 死를 賭하고固守한 左翼의 據點 嘉定의 敵陣은 今十三日朝來動지아니치못하게되엿다 皇軍이戰鬪를 開始以來 滿三個月間이며 全滅을念慮하고 血路를 開하며 潰走하는敵은 我空軍의猛攻에 唐慌하면서도 抗戰하고잇는데 戰死戰傷 戰病投降、逃走者等이 續出하야 이미戰鬪員의過半數를失하고 士氣沮喪하야 압흘다투며 太倉方面으로 潰走하는中이다 그損害程度는 南京政府의新聞機關에依하야 겨우陰蔽되어잇스나 目前에보는 敗戰又敗戰은 政府及 民衆의 士氣를 完全히悄忱케하야 莫大한犧牲을 抗日의祭壇上에捧하엿다 上海攻防戰은 支那軍의悲慘으로마치고 戰局은드디어 第二段階에드러가 崑山太倉을 第一戰線으로하는 南京攻防戰의 本格的戰鬪가 開始되려고하고잇다

上海戰況發表

【上海十三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午前十時發表

一、昨十二日海軍航空隊는 荒天을 무릅쓰고 全力을다하야 陸軍의 追擊戰에 協力하야 敗走하는敵을 攻擊하는同時에 無錫方面의 軍事行動과 嘉定의 敵本據를 猛爆하야 敵에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二、加藤大尉가 指揮하는 黃浦江封鎖線啓開作業은 昨夕綿密한 計畫과 有効한行動에 依하야 敵艦으로부터 封鎖된支那汽船中和를 모러 錨地를變更하야 出雲의下流浮標에 繫留하엿다 이作業에 當하야陸戰隊 安全部隊는 浦東側에依據한 比良 堅田 二見의各艦上으로부터 啓開作業隊에射擊하는敵의機關銃陣에對하야 砲擊을加하엿는데 이에앞서 午後五時佐藤大尉가 指揮한陸戰部隊는 南市에敵前上陸을決行하야 東昭公司倉庫附近을 占領하고 때마침進出한 陸軍部隊와 協力하야 南市攻擊及封鎖啓開作業을容易케하엿다

高橋中佐 獨總統會見說

駐獨大使館否定

【伯林十二日發同盟】歐洲旅行中의參謀本部附高橋坦中佐가 히틀러總統과會見하기爲하야 南獨의 !!베르히테스·가덴!!으로 向하얏다는報道에關하야 伯林駐獨帝國大使館에서는 左와如히否定하엿다 「高橋坦中佐가 히틀러總統과會見하기爲하야 베르히테스·가덴에赴하엿다는報道가海外에流布되엇는데 히틀러 總統이 高橋中佐와 會見할 事實이 업스리라고는 想像되지안코 또中佐自身이 總統과 會見을要望하이잇스리라고도 想像되지안는다 高橋中佐는 目下陸軍視察旅行途中에 잇는바 軍事施設 勞働奉仕團等을 視察할 豫定이다 따라서 中佐의 旅行은 政治的意味는 업다 現在獨逸旅行을 마치면 全歐各地를 巡廻하며 視察할 豫定이다」

時事解說

日伊通商協定

◇客年末 伊國에依한 滿洲國의 事實的承認、에디오피아에잇는 日本公使館의撤廢와 아디스아베바에 總領事館設置 에 關한 交涉이 [illegible]

◇元來 日本과 伊太利의 通商關係는 [illegible]

◇日伊間에는 大正八年度에 通商協定이 成立되엿는데 그것은 伊國의植民地가 除外되엿고 또前述한 에티오피아 [illegible]

日本其他諸國

西革命政權承認?

【倫敦十二日發同盟】倫敦外交消息의 報道에依하면 日本政府 及 葡萄牙、匈牙利兩國政府는 近近西班牙革命政權을 承認하리라 한다

伊蘇條約破棄說

伊某高官은否定

【羅馬十二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去七日 三國防共協定의 締結에 對하야 蘇聯政府로부터 抗議를 바덧슴에 鑑하고 一九三三年의 伊蘇友好不可侵條約을 廢棄하는것이아닌가고 傳하는바 十二日伊國政府某高官은 하바스通信의 記者에對하야 이報道를否定하야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伊國政府는 防共協定에對하야 蘇聯政府로부터 抗議를바덧스나 右通牒에對하야 回答할 意向은업다 그러나 伊蘇不可侵條約은 廢棄하려고는 생각지안는다」

滿三個月만에 黃浦江開通

【上海十二日發同盟】事變發生과同時에 支那軍은 我日淸汽船所有船舶及 상크를 爆沈하야 黃浦江 揚樹浦 浦東間의 航行을 遮斷하엿스나 我海軍決死隊의果敢한 敵前作業으로 漸次 이沈沒船舶及상크를撤去하야 水運開通에 成功하야 十二日夜부터 三個月만에 黃浦江航行이 可能하게되엿다

金少佐再出戰

南苑戰鬪에서 名譽의戰傷을 負한 半島出身의 金錫源少佐는 그後○○病院에서 加療中이든바 全治하야 昨十二日再次激戰第一線으로向하얏는데 南總督에게 左의電報를 寄하여왓다

皇軍非常時에 際하야 我半島民이 擧族하는 總督閣下의 朝鮮統治의 偉大한功績에 對하야 衷心으로 敬意를 表한다 余가 入院中에 [illegible] 十二日退院하야 再次戰線에 赴한다 끝으로 閣下의健康을祈願한다

米某有力者談

日本拒否通告에

【白耳義十二日發同盟】帝國政府의 九國條約會議第二次參加拒否通告는 十二日午前 브뤼셀府에 到着하엿는데 米國의 某有力者는 A·P特派員에 對하야 次와如히 述하엿다 米國政府는 獨自의 立場에서 九國條約會議에 臨하엿다 하므로 日本政府가 拒否回答을 發하엿다 하드라도 이에 拘泥치안코 單獨으로 日本政府와 極東問題를 討議할 『入場券』을 가지고잇다 東京駐剳米國大使그루氏는 何時에라도 日本外務省과 接近하야 極東에잇서 日本의 權益을 擁護하는 立場에서 日支問題를 討議할것이다

브라질에對해 米는措置不取

【華府十一日發同盟】브라질의 政變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注目되고잇는데 米國務長官헐氏는 十一日記者團과의會見에서 브라질에 對하야 아모措置도 取하지안는다고 言明하얏다 「부에노스아이레스府에열린汎米平和會議의 重要決議는 全米利加大陸의 各國이 相互內政에 干涉하지안는다는것이다 브라질의 事態는 브라질의內政問題로 此에對하야 米國이 批判하는것은 汎米會議의協定에 反한다」 또 『브라질의事態와 日獨伊防共協定과의 間에 關聯이잇다고 생각하고잇는가』하는 質問에 對하야는 『그런것은 모른다』고 브라질의 聲明을 回避하엿다

日土貿易協定公布

【東京電話同盟】지난十月二十七日『앙카라』에서 日土兩國全權委員間에 調印을 完了한 日土貿易協定은 御裁可를어더 十三日官報로써 公布되엿다

八面鋒

◇倫敦市長의 晩餐會上 英首相의演說로 英伊關係가 急轉直下 好轉을傳한다

◇地中海의風波에 잣기前에는 到底히 잇기어려운 消息이나 兩方이모다 各自不利를 回避하자는 工作만은事實.

◇世界에서 生産하는米의數量이 都合八億石.

◇그中에 朝鮮서 産出하는것은 二千萬石內外.

◇그러나 米穀은 交易이 地理的으로限定을 밧기쉬운商品.

◇따라서 數百萬石만 늘고주는데 朝鮮안의市勢는 왓다갓다한다.

人事·集會

▲金圭東氏(京城商工會議所議員) 北支視察中이든바 十二日午後九時廿五分京城驛着歸京

蔣方震近近 獨總統과會見

【伯林十二日發同盟】蔣介石의 特使蔣方震將軍은 伯林駐劄支那大使館에서 九國條約會議에 臨한 支那代表의 活動에 對하야 여러가지 側面的援助를 與하고잇드니 十日再次伯林에 歸還하야 마침내 近近히 히틀러總統과 會見하기로되엿다 右에對하야 伯林駐劄支那大使館當局은 十二日左와如히 述하엿다 蔣方震將軍은 近近 히틀러總統과 會見할것인데 日本政府의 第二次回答拒否와는 全然關係가업다

할리팍스樞相訪獨

英外省一部不滿

極東問題도隔意업시意見交換 英伊對立關係도調整

【倫敦十二日福岡同盟特派員發】할리팍스樞相의 獨逸訪問은 英國外務省이 모르는동안에 親獨分子間에서 交涉이 進捗된것으로 外務省內에는 一部首腦에多大한 憤慨가 눈에띄인다 其中에는 이든外相의 不在를乘한大陰謀라고 憤慨하는者까지 잇다 체임벌린首相의 獨伊兩國諒解政策은 只今에 始作된것이 아니오 最近植民地問題에 關聯하야 먼저獨逸政府가 眞正으로무엇을希望하는가를 알려하는氣運이 政府部內에 有力하게되엿다 今回할리팍스樞相의 訪獨目的도 主로 이러한 意圖에서 나온것이다 獨逸도 對英協調政策을 恒常 內意로 目標하는것은 숨길수업는 事實로 이 雙方의要望이 할리팍스樞相의 訪獨으로表現된것이다 그리고 獨逸政府로서는 過般 체임벌린首相에 對하야 라든外相을 招待하엿는데 其關係로 紹介한 經緯도 잇슴으로 할리팍스樞相의 來訪을 求한셈이다 그리고 히틀러總統과 할리팍스樞相과의 會見으로 懸案인 植民地問題以外에 極東問題에 對하여도 兩者間에 隔意업는 意見이 交換되리라하야 期待하는者도 잇스나 如何는 英獨兩國政府의 諒解에 對한 豫備工作이 主要目的이라고 解釋된다 一方 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에 對하여도 同樣으로 對立關係를 調整할 意向이잇는바 이도 또한 何等形式으로 近近 實現하리라고解釋된다 체임벌린首相主催의 晩餐會에잇서 對伊親善增進을 傳하는 英伊豫備交涉도 그表現이라고觀測된다 (寫眞은 할리팍스樞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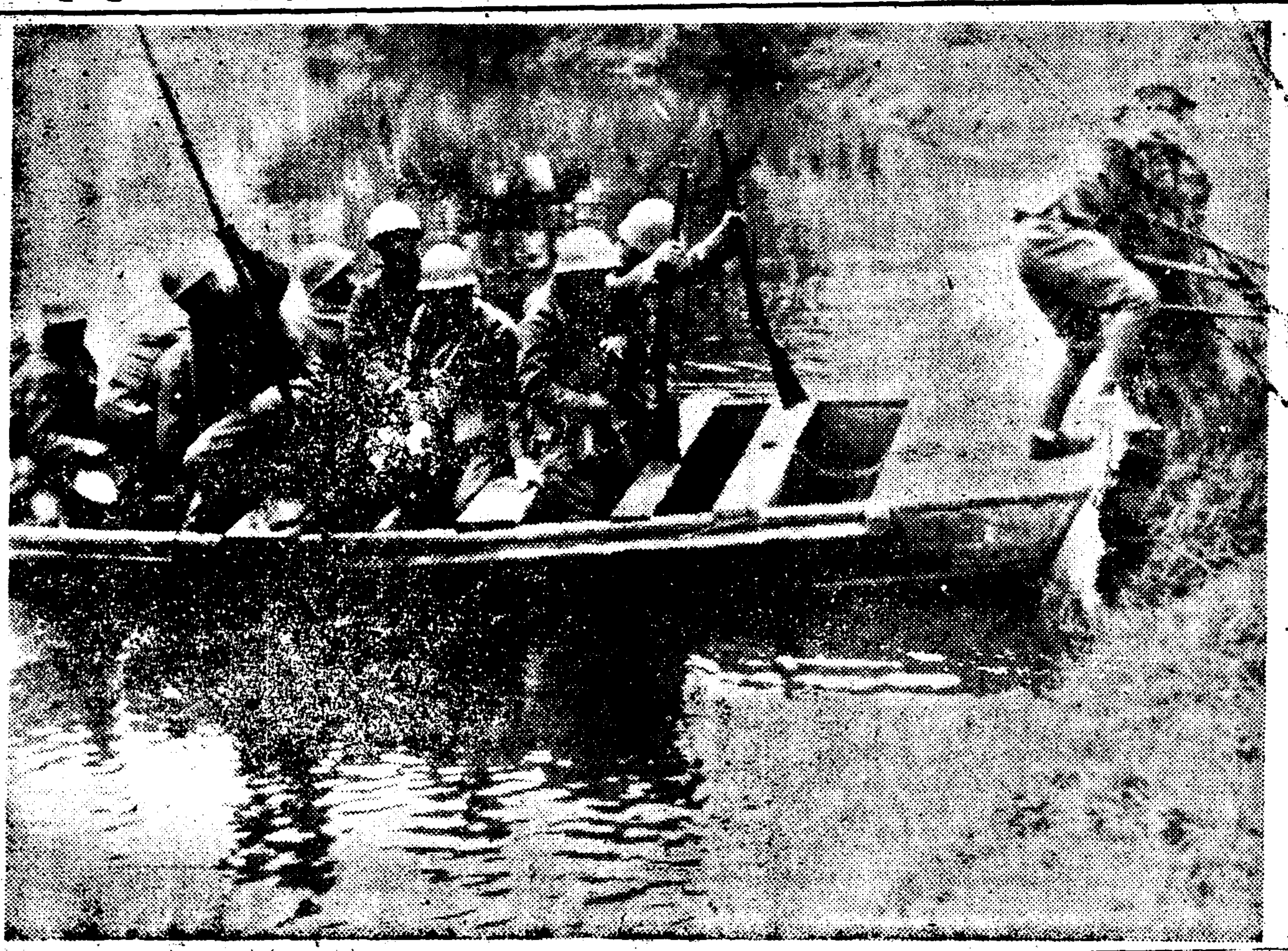
英伊國交接近說

무솔리니首相英伊會談熟考中 스탄다드紙의報道

【倫敦十一日發同盟】倫敦市長의 招待晩餐會에서 行한 英首相의演說을 契機로 再次 할리팍스樞相의 獨逸訪問을 敏捷하게야 이브닝·스탄다드外交記者는 十二日紙上에 倫敦發情報라하고 무솔리니首相은 英伊會談開始를 熟考中이라는 旨를 左와如히報道하엿다 차노外相은 十一日夜 英國大使와스퀘파의 會談에서

一、무솔리니首相은 九日 倫敦市長招待晩餐會에잇서의 체임벌린英首相의 演說을 非常히 重要視하고 去七日의 英、伊首相의 親書交換以來 체임벌린首相에 依하야 釀成된英伊關係의 相互信賴性과 和協性을 再確認한것으로 認定한다

一、以上의 情勢에 鑑하야 最近機會를어더 羅馬에 이든外相을마지하고 체임벌린首相에依하야示唆된 英伊會談을 開始하고십다는 意向을 傳達하엿다 무솔리니首相은 明白히 차노이든兩外相과의 間에 豫備的 非公式會談을 行할時機가 熟하엿다고 思惟하고 잇는模樣이다



◇上海戰線 敵前渡河하는 ○○部隊

大名城에入城

阪西部隊長以下

【石家莊十三日發同盟】十一日午後七時 大名城에突入한 阪西部隊、吉野部隊는 後續部隊와 合하야 殘敵掃蕩을 十二日午前에至하야 마치고 同正午에는 阪西部隊長以下我將兵은 步武堂堂히 大名城에入城하엿다

津浦線各地占領

【天津十三日發同盟】津浦線東側地區의殘敵을 掃蕩하며 進擊하야 鹽山(滄州東南方十一里)을占領한 我石田部隊는 十日午前 鹽山附近의殘敵을 驅逐하며 또各處의殘敵을 殲滅하고 三千의敵과 激戰하야 이를 殲滅하고 砲八門 小銃多數를 鹵獲하고 또猛進 山東省內에進入하야 十二日午前六時 同省東北部의要衝武定(濟南東南方二十里)의敵을擊破하야 同地를占領하엿다 同地는 濟南東北二十五里인데 濟陽 齊邑 商河方面의敵은 여기서그西側을 突破되여 極度로唐慌하고잇는바 濟南及黃河江上의戰機는 漸熟하고잇다

乘馬遠乘會

總督碧蹄舘에

京城府內의 軍官民乘馬愛護家八十氏는 明十四日午前九時 朝鮮神宮前廣場에 參集하야 南總督의 閱兵을 바든後 大日章旗와 總督乘馬에依한『皇道宣揚、武運長久』의 幟을 先頭로 郊外의 遠乘會를 行하게되엿다 그리고 南總督은 神宮으로부터 一行과 따로 碧蹄舘까지 遠乘할것이라 한다

九國會議

十三日에再開

【白耳義十二日發同盟】帝國政府의 第二次參加拒否回答을 接受한 九國條約會議는 明十三日午前十一時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게되엿다 帝國政府의 回答에 對하야는 十二日午後 데비스米國代表와 英國代表 各自治領代表의 私的會談 各代表部間의 接觸에 依하야 日本의回答은 最後的의 것이오 또日本이 日支直接交涉方針을 變更할 意思가 업다는 것이 判明된 以上 日本의 交涉態度가 明白한 것으로 確認되엿다 依하야 今後日本政府에 對하야 第三次招請을 發할 必要는 업다는 意見이 一致되여잇는데 會議에서는 今後의 對策을 協議할것인바 午後公開會議에서 各代表가 日本의態度에 對하야 演說을 行하고 散會할것으로 觀測된다 十五日은 休會로 할터인데 日曜日로 各代表部는 各各本國政府에 請訓하는一方 會議事務局은 報告書草案을 作成하야 十五日全體會議를開催하고 同報告書를 可決할것으로觀測된다 但이든外相은 英國을訪問하시는 白耳義國王을 歡迎하여드리기爲하야 十五日中에 一旦倫敦으로 도라가지안흐면아니됨으로 會議報告書採擇을 契機로 當分間休會에 드러가는것이 아닌가觀測된다

杭州上陸部隊

嘉興에殺到

【松江에서十三日同盟特派員發】杭州灣戰線의新銳部隊는 十三日早曉 嘉善의敵陣을 奪取한後 嘉善城을 一擧로 突破하고 敗走하는敵을 追擊하며 嘉興으로 殺到하엿다

逆襲敵을反擊

雙廟、漳河鐵橋에서

【石家莊十三日發同盟】十二日午後二時頃約四百의敵이 京漢線雙廟及漳河鐵橋에까지 逆襲하여왓스나 모두我軍의 守備隊及鐵道警備隊의 反擊을밧고 約五十의死體 小銃卵 手榴彈多數를遺棄하고 逃走하엿다 我方及鐵道에는被害는업엇다

上海南方敗走兵과 壯烈한追擊戰

【上海十二日發同盟】今朝부터南方의敗走하는敵에對하야 我地上部隊는 猛追擊을 하고잇다 이에 陸軍飛行隊川村部隊及○○隊는 呼應하야 敵密集部隊에巨彈을 퍼부어大打擊을 주고잇다 目下 南翔嘉定大倉間의 曠野에는 壯烈한追擊戰이 展開되여잇다

鐵道路警도 滿洲國에移管

【奉天十二日發同盟】滿政權時代로부터 오랜歷史를가진 滿洲國鐵道路警은 來十二月一日治外法權撤廢와 同時에 滿鐵鐵道總局으로부터 滿洲國에 正式委管하기로 決定하엿다 奉天에는 鐵道警備總隊를 設置하야 滿洲國政府의手에 依하야 同鐵道의警備에當하게되엿다 이에 依하야 日本側警察과 滿洲國警務機構는 名實이다 統一完成하게될것이다

英首相黨大會서 外交政策을說明

【에딘버러十二日發同盟】체임벌린首相은 十二日午前十一時 에딘버러保守黨地方大會에 臨하야 英國政府의 平和政策을 强調하야 左와如히 演說하엿다 英國政府의 外交政策目標는 他國政府와의 友好親善關係를 維持增進함에 잇는바 諸國政府가 我國과의 友好的政策을 取하고 國際公法에 準據하야 安全保障을 確保하기를 바라지안는다 今後의 對策을 協議

西班牙問題에關해 英佛蘇意見一致

하바스倫敦支局報道

【倫敦十二日發同盟】九國條約會議에 出席中인 英佛蘇三國代表는 西班牙問題에 關하야 非公式會議를 開催하고잇는데 하바스通信社倫敦支局의 報道에依하면 英佛蘇三國代表는 西班牙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 意見이 一致되엿다 한다

一、西班牙政府、革命兩交戰團에 各其 所屬義勇兵의 七○%를 撤收시킬것

二、右實質的撤收가 實行된後 交戰團權을 承認할것

植永趙士學醫 內科 花柳病科 新陽醫院 平壤府新陽里 電二五七五番

カナミツデイーゼル機關 ▲重油發動機 經濟更生의秘訣 運轉費用 三馬力부터二十馬力까지 在庫豐富 其他カナミツ籾摺機、製粉、揚水ポンプ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長六五六番

特別切迫!! カレンダー의御下命은 電光一九一○番으로 カレンダー 團扇 扇子 製造輸出 京城西小門町五四 杉本商店 本店大阪 京城支店

第一좋은 和信鉛筆

催眠術獨習 演說法大方 中國語獨學 人間學 萬歲曆 巡査受驗書 東洋大學堂

松の雪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防寒에는 羊皮가第一 羊皮注文處는 安東縣舊市街入口 國際洋行으로 七市勢表依請求進呈

書店急讓 朝報案內

太田支局 電話八四九番

東亞自動車學校 奉天商埠地三經路八緯路一六四 警察官(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山口樂器店鍾路支店 京城府鍾路二丁目 山葉피아노 五百六十圓부터各種 在庫豐富 山葉올간 三十七圓부터各種

非常時의尙武 醴泉弓製商會 慶北醴泉邑

男女共に心得べき!! 諸礼法 婚礼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國民書院日報係

藥은 滋味나는 도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 自由로 製造 ◇立身成功의門 日本通信製藥學校

大建築工事制限과 大量失業者沙汰

間組, 三木만 三千餘名豫想

資本調整과 鐵材統制波紋

부내남산정(南山町) 이정목에잇는 일본유한국수회사(日雲)에서는 신영방조로부터 현재기지에다가 총건평 이천여평 백만원의 철근(鐵筋)『콩크리-트』건물을 신축할예정으로 지난월 철시사무소로사용할 목조건물의 건축원을 본정서에 제출하야 시월말그허가가나와서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엿섯스나 사변뒤거로정진 자금통제법(資金統制法)과 철강공작물축제한령(鐵鋼工作物制限令)의 영향을받어 그안을 보류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리고 현재 대림조(大林組)에서 공사중인 정자옥(丁子屋)의 증축공사도 정자옥본사와 당국자간에 교섭이 진행중이나 결국은 중지될것이라한다 이상과가티 군수관계 중요한 회사와가튼 특수관계의 대경영자를 빼노코 간조(間組) 삼목합자(三木合資)등 대청부업자에서 일하고잇는 로동자 약삼천명이 [illegible] 년분부터 직업을잃게될것이라한다

이상문제에 대하야 모청부업자의말을 드르면 지금까지 이십만원이하의 공사를 하청부(下請工事)로써서 틈틈이 [illegible] 대청부업자도 이번 통제로 인하야 일을 하지못하게 될것이니 소건축에까지 손을뻗을것이나 이것조차 통제경제로 여의치못하게되리라니 한때는 청부업자를 구가하고잇든 건축업자에게도 대공황시대가올것이라고한다

共學制實施해도 朝鮮語는正科로

日本內地人兒童만은隨意로

教育令을遵守할뿐

[illegible]

京鐵道自動車業者 保安課에陳情

各種取締의緩和를

십삼일오전중에 경기도보안과에는 경기도자동차협회장 백석암(白石巖)씨외 여섯명이 출두하야 최근비상시국을당하야 물가고등과 금융경색에의한 업자들의 곤난한 형편과 다음의 여러가지 요망을진정하엿다 첫재 최근시가지(市街地)에 제한이 나온이후 특히 엄중하여진 차고(車庫)취체와 차고건축을 완화하여달라는것이고 그다음에는 인천(仁川)『택시-』료금의 인상과 화물자동차의 승합(乘合)영업을 겸행하고 또자가용화물자동차가 영업행위를하는 불령업자를 엄중히 취체하여달라는것과 특히 교통사고를 자아내면 [illegible] 피해자만을 보호하고 설령 가해자는 아모과실이 업고 피해자가 잘못하야 사고를 내엿더래도 [illegible] 가해자를 벌하여왓스나 금후로는 그책임을밝혀 쌍방에 공평하게 지워달라는것이 그중 주요한것이엇다

佐伯京城府尹 ○○部隊長에謝電

경성부윤좌백(佐伯)씨는 십삼일의 [illegible]

四千三百名連署 鐵道局長에게陳情

非指定業者에壓迫은안하겟다고言明

"宅扱"制度反對運動

철도국에서는 오는이십일부터 조선만주사이에 직통소화물제도로 만주로가는 소구화물(小口貨物)을 취급하기로되엿고 또조선안에도 명년일월중부터 소화물『택급』(宅扱)을 실시하게될모양인데 이리케되면 조선안일천여명의 비지정운송업자(非指定運送業者)는 그영업에 다대한 타격을받게될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illegible]

不正業者二百名 第一次朝鮮還送

農業希望者는農土를斡旋

明十四日奉天出發

[illegible]

分割土地에通行料 轉買者는取得可能

高等法院의新判例

[illegible]

雇員百名動員 府內戶口調查

경성부호적과(戶籍課)에서는 [illegible]

四十五名勇士參列한 劍道大會開幕

今日 本社大講堂의壯觀

[illegible]

滿洲氷上對抗等 諸行事日程

[illegible]

醫師試驗第三部 合格者發表

[illegible]

米國人宣教師 將兵慰問獻金

[illegible]

土地坪數割賦課 書面會議로決定

賦課地域은卅五處

경성부에서는 지난번에 발표되 [illegible]

一日三秋約婚반지 消 업자自殺로斷念

約束한그날은가고도또사흘 버림바든그處女의紅閨怨!

[illegible]

北支安全農村 建設工事에難關

水源問題로四五十萬圓을豫算

[illegible]

一家族潛跡

부산부영선정(釜山府瀛仙町) [illegible]

支那人歸國과 建築界에打擊

그中石工不足이尤甚

[illegible]

여장수鐵道自殺

[illegible]

狸 高價買入 東京下谷入谷三九〇 山口屋小動物園

天氣豫報

[illegible]

G-U一사이드 入荷切迫!

지 유

販賣志願藥房諸位에게告함

"柳韓洋行이 治淋劑를 民衆에게 宣傳販賣치안흔理由"를 임이紙上에 公表한同時에 劃期的大發明品인 治淋劑의 輸入途中에잇슴을 豫告하엿습니다。

以來四海僉位로부터 問議와 註文이多大하엿스나 歐洲로부터 二個月餘의 時日을드리여 輸送됨으로 아즉까지 入荷되지못하여 需應치못하게된것은 實로未安하게 生覺하는바입니다。

今後輸送中에 特別한 障碍가無하면 十一月下旬頃에는 入荷될것으로 期待하옵는바 本劑는 特別한 藥劑로서 服用法禁忌等其他에對하여 販賣志願藥房과 爲先緊密한 聯絡을取코저하오니 G-U一사이드販賣를願하시는 同業者諸位는 官製葉書로 G-U一 사이드販賣申込을하여주시면 明細한 案內書를 보내드리겟습니다

또한 豫告코저함은 今後第一次第二次의 順次繼續的輸入이有할것이나 第一次輸入數量은 意外로需用이過多할듯하며 入荷後곳品切되여 不得已註文에 應치못할 境遇가잇슬지몰으겟스니 其時는 미리諸賢의寬厚한 諒解를바라나이다

外國藥品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모루히네慢性中毒에 福모나ー루 (文獻贈呈)

モルヒネ、ヘロイン、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其他同類麻醉藥の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大阪市東區淡路町 田邊五兵衛商店

推薦謹告

李根茂君

今番大邱商工會議所議員選擧에際하야李君을最適任者로推薦함

商工聯盟 雜貨商同友會有志一同

淋疾 糖衣カハカハ

代理店 京城本町

中國名方 性器強 大靈藥

아ー참神効하다

富興公司藥品部

謹啓

在鮮中에는 多年公私間多大한 御懇誼를 蒙하얏사오며 또한 今回退鮮에際하야는 多忙하심도 不拘하시고 餞送하야주시와 紙上으로서 기피 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十一月十三日 有賀光豊

女性、十一月號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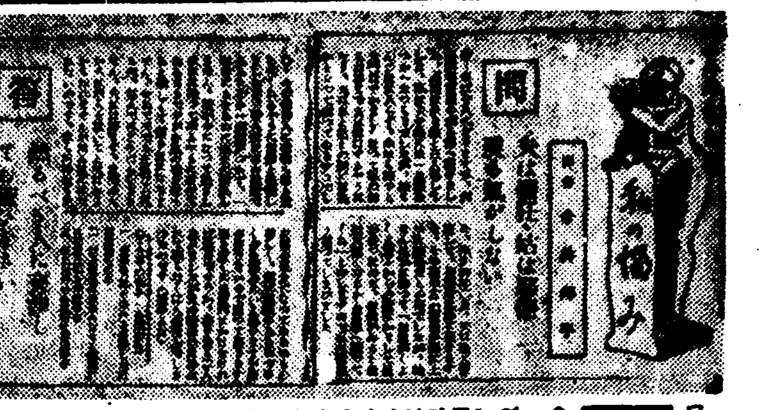
イカリソース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信用 日本一의品質

推薦謹告

南鮮運輸株式會社 株式會社慶尙合同銀行

大邱有權者有志



東京中外商業新報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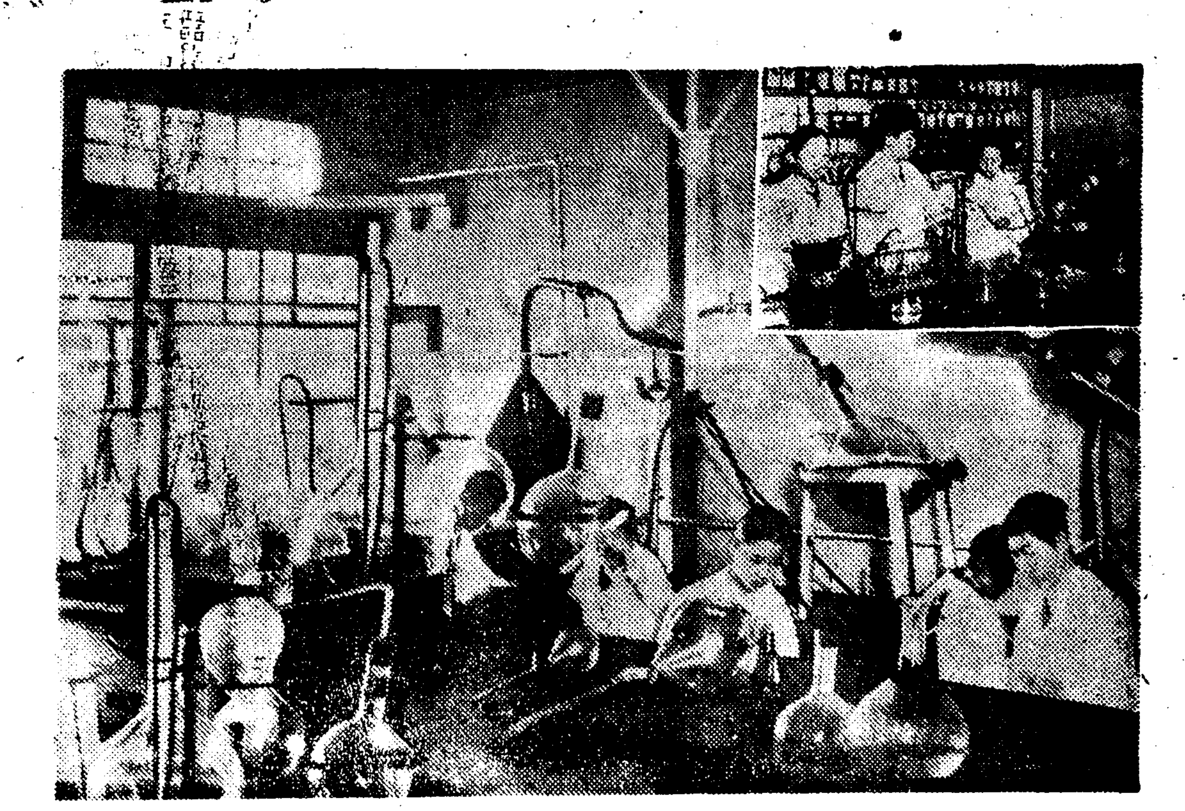
동경중외상업신보소재

무서운매독으로말미암아 [illegible]

問 남편은 밋처(發狂)바리고 시어머니는구박만하니 시집사리못해!

◇나는 이십세되는 며자인대 사년전에 명고옥이란곳 어느집으로 시집갓습니다 시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세식구이엿습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일심정력으로 봉양을하엿는대 시어머니 눈에나서 반년이못되여 잔소리가 심하야지고 무엇업는것도 남에게 도바거말을 고자질하며 [illegible] 하얏슴으로 남편은 새중간에서 엇지할줄을모르고 [illegible] 그런대 작년이월에 남편은 별안간 발광(發狂)하엿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바든즉 십년전에 걸녓든 매독이 머리로 드러가서 뇌매독이 되엿다합니다 이런것을 시어머니는 「네가남편을 잘못수발하야 걱정만식혀서 밋처버리게되엿다」고하면서 네가잇스면 더ー심하야질것이니 친정으로 도라가라고 쫏처냇습니다 그후 할수업시 [illegible] 지금다시시집으로 도라가자하니 [illegible] 남편에게는 [illegible] 시집으로 갓다고 [illegible] 상에서는 병든남편을두고 [illegible] 라하는대 [illegible] 장차 엇지하엿스면조켓습니가

答 [illegible] 사정입니다 [illegible] 의뢰하야 [illegible] 오



(제어시험실광경일부)

신성당제일시험광경일부

이러한 조선제일가는 큰시험실(試驗室)은 신성당박게업다。

주사로안낫는분은꼭쓰셔오

매독전멸

매독엔 푸로다ー가제일

驅黴最強力劑

에 제일힘센약

血의敵

앗가운 청춘 꼿다운 청춘을보호하자

全人類의敵

인매독을박멸하자 內務省統計에 매독으로사망하는자가 일만명중에 一一〇이라는수자로서 다른나라보다도 몃배더만타한다 더욱 사람의꼿따운청춘시대에 특히만흔병이니 참통탄할일이다 그런대 어병은 화류병이고 또 코가 떠러지고 언청이가되고 ○에빠지고 룩룩 창독어러저고 하는아주 저독하고창피한 악질임으로 병에겁넷서도 남이봇그러워 잘말하지 아니하고 내외간이라도 말못하는 일이 만타 또 유전으로 선천매독이 만흐나 이역시 매독인줄 알면서도 잘 말하지 아니한다。그럼으로 매독이 이세상에 그러케만치 아니한줄알지만은 한번 걸리여서 고치지 아니하면 칠팔대(七八代) 유전하는 이매독이 우리 인류에 얼마나 만히 퍼저 만연되여 큰 해독을 주는가는 일반 전문가는 물론 나라정부에서도 크게 근심하는바이다

一時的、不合理、不充分한治療를排除하자 도리혀병을악화한다 병고치려다가

生命을빼앗긴다

그런대 보통、매독이라하면륙백륙호(六〇六號)주사로 병균을일시 잠복만시키는일시적 치료법외에는특별한 약이업섯다 하는수업시 독한약을 피우다가 참혹히피를토하고 죽는수가만헛고 또주사도 일주일에 한번씩 수십주일을 두고 마저야 겨우 그만하게는하나 춘추(春秋)로 다서 도질뿐아니라 잘못마지면 살이썩고 생명에도관계되며 수십원 수백원의 금전어들게되니 무서운 병인줄알면서도 그대로 두게 되니 참절통비탄할 일이다

悲觀하지마시오 悲觀無用

중병이라고 비관할것도아니오 경중이라고 방심은 절대마시오 특히 잠복성매독은그다지 심하지아니 함으로 등한히 생각하고 치료를 태만히 하면 병세는 점점 기피드러가 내장 골육(骨肉)에까지 침입 하며 척수(脊髓)로부터 균이 머리로 드러가 발광(發狂)하게되며 중풍 반신불수가 되기도하고심장마비(心臟痲痺)되일혈이되여일조에 생명을일케된다 하물며 잠복하지아니하고 외부로 러지거 서작하면 연한 뼈를 침노하야 파드러가는 성질임으로 코가 부저중에 떠러지고 원몸에 종기가 러지고 골수로 드러가서 대육신이 쑤시고저리고하야 참혹한 일생을 보내게되며 무죄한 자손에게 유전하야 적악(積惡)하게되니 엇지 두렵지 아니하리오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한것은우리의신체오 우리의생명이다

육체를 갈가먹고 생명을 빼아서 인생을 여지업시 짓밟버버리는 대적중에도 악독한 대적을 전멸하자

매독전멸

根本的治療方法

전인류를 구원하는 천사가왓다 과학의 위대한힘은 드디여대승리(大勝利)의함성(喊聲)을 치고 세상에나왓다 수만흔 환자의 물밀듯하는 감사의 편지가 산갓치 싸엿스니 완전히 악독한 병마를 정복(征服)하고마럿다

매독、당창에는

푸로다ー가제일

이라는말이 드디여이세상을 뒤흔들고마럿다

그러면 푸로다ー가엇지하야 매독을 전멸식히나 절대

특효한리유

는무엇인가

일、내복하야 합리적흡수(合理的吸收)즉먹은약기운이 완전히흡수된다

이、그리하야 혈관을 통하야 피를맑게(血液淨化)하며

삼、약이혈액중의 백혈구(白血球)와 합력하야 병균을 죽이는 힘이제일 강렬한것(殺菌力强烈)

사、신진대사의 기능(代謝機能)어 특수함으로 당창이 러진데라도곳새살이 나서낫게되고(筋肉蘇生)

오、병독을 박그로내ー모는 성질이강하고 속함으로내장에 병독까지속속드리 업새게되고

륙、「주사」는 피속에 병독균을마취(痲醉)하게할뿐이나 이약은 골수에깁히 백인균까지전멸식힘으로 신체내에 잇는독이완전히치료된다

칠、그럼으로 절대로 재발 되지아니한다 (絶對不再發)

팔、약성질이 제일강하고도 우량함으로 결코부작용이나 구감이나거나 하는일이업다

구、균을죽이는 힘이강하고 독을내모는 작용이강대함으로 치료하는 기간이아조속합니다 (治療短期間)

일주일이면 대효가납니다

다음가튼중세에 쓰시오 남녀간 국부가 헐고、좁쌀가티도든분、몸이가려웁고 여기저기 종기가나는분、눈이 회미하고이가(齒)솟는분、얼굴에 여드름가티 마니 나는분머리가 빠지고 코가허는분 팔다리가 쑤시고저리고등창 이러진분 태독、창독、습독、양매독、선천매독、감창、일절매독성제중

일각의지체가 십년의후회

신성당에서책임지고드리오니 곳쓰시오

꼭주의하여야할일

약만전문으로하는약전문회사의약이일심전력(全力)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는고로 효력이제일 임니다 무슨 회사약품부니 무슨상점이니 하는데서 파는것은 약이전문이아닌고로 약효가실하다고 할수업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의약화(科學과醫藥學)이 제일발달된 선진국의 약품을 즉접 수입하는 약이조혼약이고갑도쌈니다 조선안에서 바더서파는것은 빗싸고 무효한 무명품어 만습니다 주의하서야함니다 좀 잘생각하여 보시오、또요지음 되지못한 약을 가저고별별수단을 다부려광고 하는자들이만으니 주의하시오신 성당을모방하고자하는광고에 속지마서오、장담하고절 대보증하고드리는약은신성당박게 업습니다

무료혈액검사 지방에서설비가 불충분하야 혈액검사를 못하시는분은 의사에게 피를 뽑아보내시면 무료로 검사표를보내드리겟슴니다(保健奉仕)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약가

완고중에	십오원
중 중 에	십 원
보 통 에	칠 원
경중예방에	오 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다른병파다르니「십오원짜리」를 쓰시고 후환을업새시오

支社大募集

(大特典附) 規定書郵送

漢藥도具備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第一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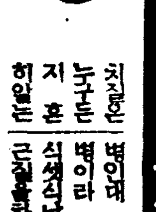
資本金百萬圓 朝鮮第一가는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入口(一三) 서대문제일큰헌병옆접

元祖ケンオー王 本舖鮮滿總發賣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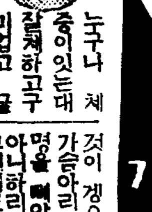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 光化門一〇七七番 振替口座京城一四九五〇番 私書函西大門第二號光化門第四五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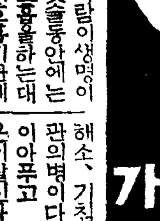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알는 병인대 대단히 괴롭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흔히 크구멍이들식세식나다 보통수술을하느니 단근질을하느니 상약을하느니 하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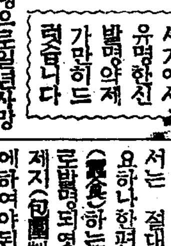
속병 체종엔 겡오ー가제일

누구나 체중이잇는대 잘체하고구미업고 끌끌하고 신트림하고 배아프고 설사하고가슴이쓰리고 생목이올나오고배가무룩무룩하고 박기가잣고하면 체증이라곳안고치면 확맥키면즉사한다매경도된견도 곳돌는것이 겡오뿐이다 가슴아리、속병、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엇지두려웁지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가시사고일시적인위장약을써서 습관성으로 중독이되여 항상약을맥놋코는살수업시된다 겡오ー(KENGO)는 약효위대하야일시적이아니고 비위를보하고 위장의근본조직을다시 소생식히고 소화를잘식 [illegible]



해소 기침엔 에치세ー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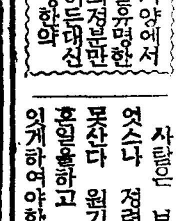
사람이생명이 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대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명에관계가된다。 해소、기침、담 천촉증으로호흡거관의병이다감기로기침을하야도독이아푸고 끌이쏘다지는것갓고기운이탈진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 오래고생하면 감수를하는것이다 심하면제일무서운 폐병으로변하기쉽고폐염이되여위급한일도잇다 [illegible]



폐병 부족증늑막염엔 나오세ー NAOPER 가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 발명약제 가만히드 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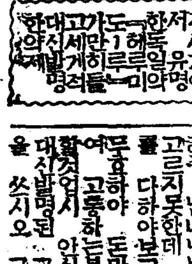
폐병은 난치의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데종래의치료 [illegible]



보양을 보약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드린대신 발명한약

사람은 보통배살까지는수명이 엇스나 정력이 쇠약하야 오래못산다 원기가왕성하야 하고십흔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잇게하여야한다 새로 신발명한 [illegible]



림질엔 대하증냉병엔 구로베ー KUROBER 이제일

현대고가도ー한서전 약신세만ー해독 세 계발게히르르일유게 명려들ー미약명에

남녀 만금의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병 오좀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 하혈등으로 [illegible]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나무도 다치면 균이 못드러오게 진이나와 막는다

소나무가쟁이에 무손 상처가튼 것이 나면 거기는 노란 진이 솟아 올라서 엉키어 잇습니다。그것이 곳 송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소나무를 비고 난 둥컬이나 또 소나무에서 벗겨낸 껍질에서도 모다 노란 진이 방울방울 솟아 나옵니다。그 역시 모도다 송진입니다。그러면 소나무는 왜 그러한 송진을 가지고 잇는 것입니까。소나무에 상처가 생기어서 비가 숨여들어 가고 균이 번식올하게되는날에는 고만 그부근이 점점 썩어서원나무가 죽어버리게될ㅅ것입니다。그것을 예방코자 송진을 가저 막는 것이랍니다。물론 다른 나무에도 이와 가튼 목적으로 진을 맨들어 내는 것이 만습니다。위선 단풍 나무라든지 참나무도 그런 종류올시다。그런데 이 송진이 우리네 생활에 잇서 여간 필요치 안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게십니까。아마 바이올린의 줄을 긋는 활에다가 송진을 문대서 쓴다는 것쯤은 누구나 모르지 안켓지요 만은 그이외 에도 필요한 데가 적지 안습니다。그림울 그리는 크레용에도 송진 에서 뽑아낸 기룸이 들고 조히를 제조 하는데는 더구나 송진이 업서서 안 되고 또 고약에도 석고 방수포(防水布)에도 석거서 여러가지로 쓰고 잇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일부러 소나무에서 송진을 뽑고 잇습 니다。즉 소나무에 껍질을 벗겨노코 거기다가 홈을대어 송진을 바다 모으는 것입니다。본래 일본서 쓰는 송진은전부 미국쪽에서 수입하얏섯는데이제부터는 국내에서맨들어 쓰려는 작정 입니다。조선은 원체 소나무가 만허노흐니까 송진농사가 퍽 유망할ㅅ 것입니다。왜 여러분은 고무이야기를 듯저 안햇습니까。그 역시 송진이나 마찬가지의 나무ㅅ 진도 그러케 귀히 쓰이는 것이 잇지안합니까。송진이 고무만큼 귀중치는 안해도 그ㄴ 중요한 원료의 하나입니다。

歷史이야기 후삼국

文 一平先生

진성녀왕때에 신라가 크게어스럽게 된 것은 이미 말하엿습니다。

이때부터 신라라는 나라이 다시셋으로갈라젓는데 이 갈라진 세나라를 후삼국(後三國)이라고 합니다。

웨 후삼국이라고합니까。전에도 삼국이 잇기대문에 뒤에생긴 삼국을 후삼국이라고 일커릅니다。

신라가 통일하기전엔 조선안에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 신라(新羅)、이러케 세나라가 잇지안엇습니까。그리던것이 신라가 고구려、백제를 아울러 한나라를 맨드럿더니 진성 녀왕때에 이르러 이것이 또 다시 세나라로 갈라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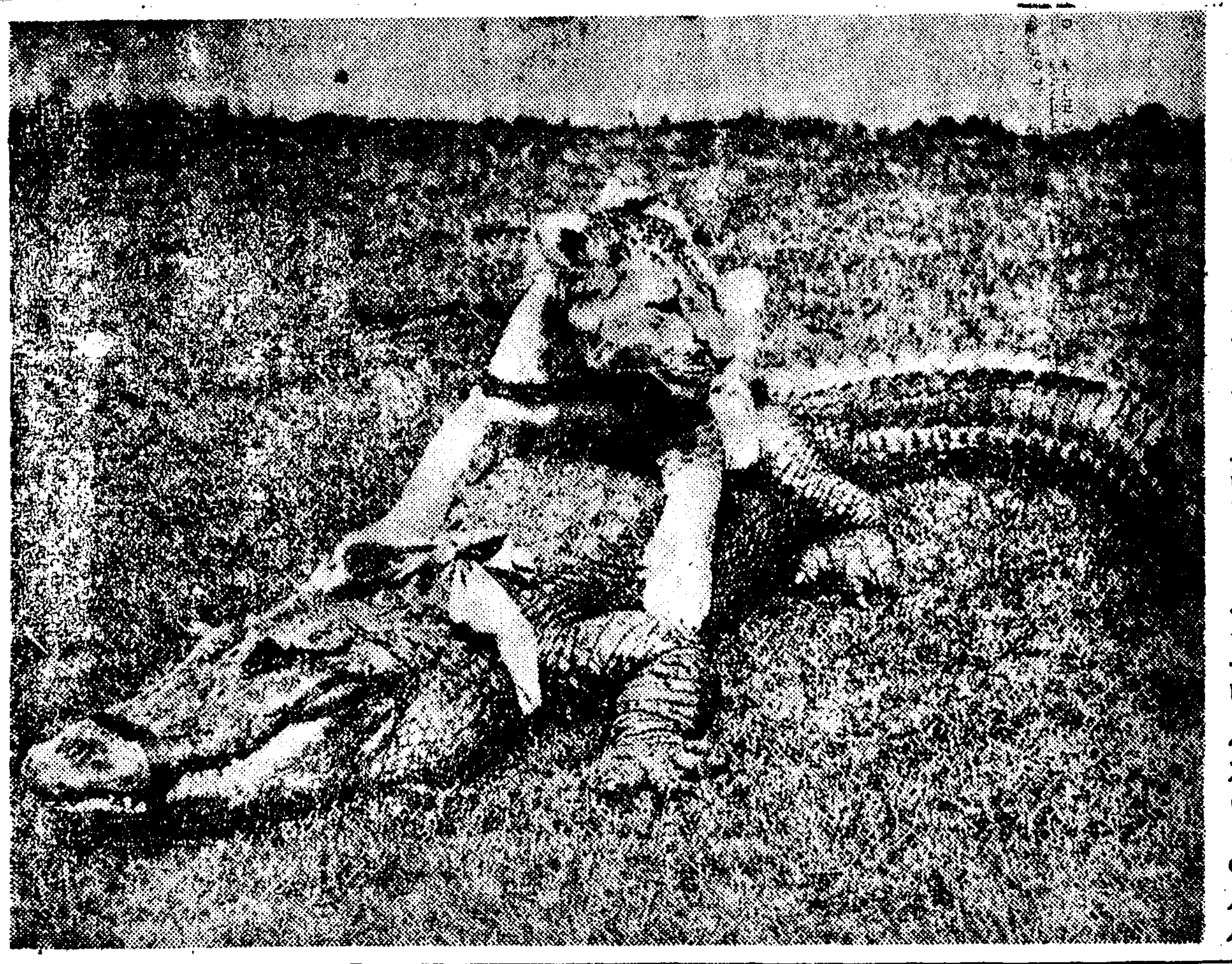
지금 그내력을 말하면진성녀왕때에도 적의떼가 여기저기서 일어날새 그중에는견헌(甄萱) 이라고하는 잘난사람이 잇섯고궁예(弓裔)라고하는 잘난사람이 잇섯습니다。

견헌은 본대 농가(農家)에서 생장하엿고 궁예는본대중(僧)이엿습니다。이러케견헌은 농가에서 투여나와 넷날백제땅에다 다시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고 궁예는 중의 출신으로 넷날 고구려땅에 또다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견헌의 백제나라는 서울을 전주(全州)에 두엇섯고 궁예의 고구려나라는 서울을 철원(鐵圓)에 두엇섯습니다。

신라는 이때도 서울이 경주(慶州)에잇섯는데 견헌의 백제와 궁예의 고구려가 떠러저 나가기 때문에 신라는 다시조고만 나라가되고 말엇습니다。

이로부터신라、백제 고구려세나라이 서로 싸우기를 말지 안엇는데 신라는 갈수록 쇠약 하게되고 새로 이러난백제와 고구려는 갈수록 굿세게되엿습니다。그리하야 나종에 가서는 신라가 아주 망하고 말엇습니다。



의조흔사이

본시 사자하고 악어하고가리 놀수업게지요 그러치만 이러케 길을 잘드려노앗습니다。악어는 금년에 일백일흔다섯이에요 동에 올라와진사자는 난지 겨우 여덟달밧게안된 색기사자입니다 따뜻한 양지쪽에서 둘이기념사진을 찍으라고 가만히잇습니다 처음에는 사자색기가 이상한놈도다잇다고하고 악어등에 올라탓습니다。악어도 웬놈이이러케 누르냐하고 한참멍멍히 잇섯습니다。어른이라 어린사자를그대로업고 잇섯는게지요 잘들라구

"유리판이야기"

여러분 학교엽창이나 집에와서 분합창에 끼인 유리판이어떠케 만드러지는지아십니까 제일 쉽게하려면 유리판이 판으로되기전에는 불에 다려서 진한 기룸갓습니다。쇠도 구더노호니 그러케 단단하지 정또거운불에 되게다루면 그것도 아주 기룸과가티 됩니다。그러니까 유리쪽이야 되게달면 아주 물가튼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물가티된 유리를 큰 쇠판자우에 붓고서 홍두깨가튼 철봉으로 눌러밀면 지금 유리창에 박혀잇는 유리와가티 납작하고 펀펀해집니다。그것을 잘식히면 지금 보는것과가티 단단해집니다。그리고 넓은 판자우에붓고 철봉으로 밀기도하지마는 또한가지는 가튼철봉두개를 맛대이고 그속에 물가튼 유리녹힌것을붓고 그철봉을 쿨리면 역시 그틈으로 유리 판자가 빠저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유리판자를 만드는법이지마는 어떤 유리판자를 보면 한쪽은 반들 반들해도 다른한쪽은 오돌 도돌하게 되엿습니다。이것은 어째서 그러냐하면 쇠판자에 유리물을붓고 철봉으로 밀거나 철봉두개를 돌리면서 그속으로 유리판을 빼거나 아모런 한쪽은 반들반들하게만늘고 다른 한쪽은 오돌 도돌하게 만드러 노흐면 유리판도 그대로 박혀나와서 양쪽이 달르게되는것입니다。그러면 이것을 왜 일부러 이러케 만드느냐하면 첫재 유리창으로 드러오는 해빗치 보통유리창으로 드러오는것보담은 한쪽이오돌도돌한데를 통해드러오는데 광선이 꺽기기도하고 굽기도하는 때문에 방안이 사방으로 밝기가훨신 더나흔때문입니다。

아、요놈을요러케… 아주쉽게 잡아올려집니다

즘생이거나 새거나간에 집에서 길드린것이라도 잘못쥐면물리거나 할퀴거나합니다。

귀여워서 좀 쥐어보고십허도 물까바 겁이나서 엇더케할가하고 한참 생각한일이 잇지안어요 고양이는 사진에 보이는 바와가티 머리를쥐고 박작 처들면됩니다。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이러케쥐면 머리뼈의 가죽이 느러저서 잡기도 조홀뿐더러 잡은사람을물래야 물수도업고 할퀴주도 업게됩니다。어미고양이가 색기고양이를 물고가는것을 보셧겟지요 바루거기를 뭅니다。

도야지는 고양이처럼 그러케 처들수업습니다。잡을데가 맛당찬습니다。알다리를쥐면 뒷다리를 버둥거리며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놈은 뒷다리를 쥐고 처들면 거꾸로 매달려꼼작못합니다。

그다음에는 토끼란놈입니다。토끼는 귀가 길다라니까 귀만 잡으면 되겟지 하시겟지만 그랫다가는 큰일입니다。귀가크지만 막우 끄들라고 된귀가 아니에요 이토끼는 못들며 쥐어처들고 한손으로는 몸기짝을 줍처바치면됩니다 이래야 토끼가편하답니다 귀를잡으면 못쓴다는것말입니까 귀를 잡으면 귀병이생긴대요 토끼가 많입니다

마지막으로맹장어입니다 사려잇는 뱀장어나 미꾸라지는 미끈미끈해서 아모리 손으로쥐어도 손고락새로 쏙쏙빠저나갑니다 꼭쥐면쥘수록 더잘빠저다라납니다

자ー엇더케하면 쥘수잇슬까요 사진에보이는거와가치 사람으로치면 가슴패기쯤 되는데겟지요 이근처를 엄지손가락과 둘재손까락으로 배를누르면서 살며시 처들면잽혀집니다 어때요 용치안어요

아푸리카여행하다가 코키리한테혼난얘기

만손이라는 사람은 동모의월손과 함께『탄강이카』호수를구경하고 애푸리카에서 제일 노픈산이라는『키리만자로』산、그 더운날에도 그산봉오리에는 언제나 눈과 어름이 녹지안코잇는데 그것을 처어다보면서 작고만 북쪽으로 들어갓습니다。

두사람은 애푸리카의 남쪽케ー프타운으로부터 애푸리카의북쪽 카이로까지 일만이천키로나 되는 길을 거러서 려행을하고 잇섯습니다。

이러한 도보려행을하는가운데서 몃번에나 큰빼암에게쪼껴서 죽을번하얏스며 즘생에게 잡아먹힐번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

이러케 무시무시한곳을 척척키로나것고나니 지금은 솜처럼 피곤하야젓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목적한길만은 어떠케하더라도 거러가야합니다。한참거러가니 아름다운시내ㅅ가 흐르고잇섯습니다。

『자ー여기서 조곰 쉬여가세』

하고 만손은짐을내리어 노코옷을 버슨채 시내ㅅ물에 뛰여드러가서 목욕을 햇습니다 그때건너편 숩속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드니 만손을 향하야

『코키리가나오지안나?』

하고 만손을 향하야 수군거리엿습니다 그때에숩속에서 꺼먼집응이나타낫습니다 두사람은 놀나워서 건너다보니그것은 코기리엿습니다 목욕은그만두고 뛰여나와서 옷을입고 총을 겨우엇스나 코기리는원래 사람을 해치거나 이달려들지안코 온순한즘생이므로 이것을함부로 잡는것은 법률로 금해잇습니다 누구나 꼭잡지안허서안될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허가를 마려야하며 허가업서잡올때는 일천오백원의 벌금을내게되는것입니다。그러나 이는때 어떠케 덤벼들지모르므로 만약 위해할때는 벌금을 내더라도총을쏘아서잡기로 두사람은 의론하얏습니다 그러던차에 코기리는 총을들고잇는두사람을 보앗는지라 자기를쏘는줄만알고 그만크다란입을 버리고 코를하늘로치빼치고 괴상스런소리로 소리지르기시작햇습니다 우는소리에놀내인 두사람은 그만오던길로 다름박질을처서 달아낫스나 코기리는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왓습니다. 만손은 그만어떠케무서웟는지 총을떠러트려버리고 그것을 집흘여가도 업섯습니다。

코기리는 크다란몸집망정 재바르게 뎀벼드럿습니다。

만손은 하는수업시땅에 누어버리엿습니다 코기리가 세차게 따라오든힘으로 그만지나가버릴가하고 그러케 누어버리엿습니다

그리하야 가지엣숲속을 가여도망갓스나 코기라는 멀돌을 밟으며 따라왓습니다

지금은 더다리볼도리가 업섯습니다。

코기리가 만손의겻헤왓슬때、그는 죽엇구나하고 각오해버리엿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코기리는 엽까지와서는 아모기척도업시 서잇섯습니다 자세히보니 코기리는 만손의 헬메트모자를 밟고서잇섯습니다 코기리는 모자를밟고서서 사람을죽인줄로만아는모양이엿습니다。

조곰지난뒤에 멀리서 다른코기리들의 우룸소리가나자 모자를밟고섯던코기리는 그만우룸소리나는곳으로 달음박질을 해서 다라나버리엿습니다。만손은월손이 어떠케되엿는지 궁금하야차저보앗더니 그는숲풀속에 숨어서 손짓을하얏습니다 그곳에달려가보니 월손은 벌벌떨면서하는말이 지금곳이곳에 사자가지나갓다고하엿습니다。

코기리에게 쪼겨서 겨우사라나니 또사자가나타낫습니다 그러나사자는 코기리와 달러서보기만하면 사람에게 덤버드는것입니다 섯불리 총소리를 내면 그근처즘생들이 모다놀래서 모여드므로 숨을숙이고 풀속에숨어잇슬때 사자한마리가 그아들 지나갓습니다 그리고 사자는다시눈에띄이지 안햇스나 어쨋든 하마트면 큰일날번햇습니다。

조히접기 비둘기

●조히접기중에 제일쉬운접니다。

1、한장가나에 정방형을 접니다。

2、그림에 맛도록 양쪽을 접어 맛다…

3、이번에는 그거를 도로접습니다。

4、그리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접습니다。이쪽을 어러케접고 저쪽도이러케 접습니다。

5、비둘기의 목아지를맨듭니다。한쪽손으로 비둘기의 가슴근처를 쥐고다 …으로 어르키면됩니다。

6、목아지가 되거든 이번에는 머리를접습니다。

7、다되거든 크레온으로 개를그리고 눈을그리면됩니다。

어것은 어린동생에게 접어 켜주십시요

旭湘金画 다낫훈구에

웃음단지

원숭이의자손

아버지『사람의 선조는 원숭이엿다는 말이다』

떠벌이『그러면 아버지부터 원숭이라고 부르지를 마세야지요』

아버지『그건 무슨 소리냐?』

떠벌이『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조상의 어른은 불르지 못하는법이라시든데요』

머리가진필요

선생님『너 여름 봄동이는 암만 가리켜도 모른다 그머리 끝을은 두엇다가 무엇에 쓰는게냐』

복동이『제가 머리조차 업섯든들 선생님은 때리실곳이 업섯슬ㅅ거 아닙니까』

홍해의빨간물

갑『여보게 자네 그동안 서양을 갓다 왓다데그려。』

을『응 그랫서』

갑『그래 홍해(紅海)바다가 잇다니 대체 그바다ㅅ물은 어떠케 되야서 빨간가。』

누가벳겻는지

금희『얘 옥히야 너는 네겨작문을 짓지 안코 내겻을 고대로 벗기니 어쩌자는 말이냐。』

옥희『언제 벳겻다고 그래』

금희『그런데 왜 네래와 꼭가트냐』

옥희『그러니까 너해를 벳긴거지。』

이야기 동무사랑

任元鎬

『이놈!』

『어유!』

『이놈!』

『어유!』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 누가누구한테 맛는지 학교마당(운동장)한편에서 아이들의설레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이리로 〃빼이론〃이 지나다보니 그의동무 〃뻴ㅣ〃이심술쟁이 커드란 아이에게 매를맛고 잇섯습니다〃빼이론〃은 때리는 아이의 손을잡고싸홈을 가로마럿습니다。

『얘야 너 왜이리 사람을 함부루 때리나?』

『때리면 어때? 건방진수작을 하니깐 그러치』

『이거노쿠 말루해라』

『안돼! 안돼!』

『그럼 몃개나 때릴셈이냐』

『왜그래? 그건 내맘이지 머』

『몃개나 때릴텐가 정 때리구십건 남어진 나를 때려다구 응? 얘는 뼈두꿈이 약하단다 대신 나를때려다구 응?』

〃빼이론〃은 목메인소리로 사정사정 말을햇습니다 그의 두눈엔 반-짝 눈물방울이 아롱저 보엿습니다。

이말에—동무사랑 정다운 이말에 대번 심술성이는 마음을 돌렷습니다 부르쥐엿든 주먹이 스르를 풀리엿습니다。

『머 대신 때려달라구?—오—내 잘못햇구나 빼이론안』

심술성이는 빼이론을노코 부끄러운듯 빙그레 우스며잘못을 말햇습니다 그래세동무서루 손잡고 놀엇습니다。

이러케도 어렷슬적에 동무사랑 마음이컷하던『빼이론』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되엇습니다 저ー영국의 이름노픈 시인(詩人)『빼이론』은 곳 그때 그이엇답니다。(끗)

〃偉人傳記〃

비

申愛善

비야비야 오너라 우리꼿밧헤 오너라 고흔꼿씨피거든 솟노나주게 우리꼿밧헤 심은꼿씨는 너오기를 기다린단다。비야 비야 오너라。우리꼿은 어엿분꼿에 밝안선이 돌린꼿지핀단다。비야 비야 네가 조흘만더오면 우리꼿은 채전과여서 너를보고방긋긋으며 줌출줄게다

맹꽁이학교

介川公普 五年 朴孝昇

우리집 압못에 맹꽁이학교

쉬지안코 열심히 공부를하네

×

자고나니 오늘도 저이끼리

맹꽁맹꽁 노래하며 공부를하네

역시 거리를헤매는 서양에 나무장사

날이추워지니까 집집마다 장작을 만히사노코 때게되는데여기서는 산에잇는 나무를 잘라서 기차로 실어오거나 나무군이 마차에실거나 소바리에 시러다가팝니다다만 다른나라에서도 역시 겨울에는 불을때고사라야 할테니까 나무장사가 나무하거나 숫을구어다가팝니다 인제사진을 보십시요。오른쪽부터입니다。

◇…산산에눈이와서 하야케싸이게되면『유ー고슬라비아』나라 중앙『달마치아·코투톤』이란 촌에는 숫장이섭니다。숫은 여기서모양으로 갈대나 수수집으로 역근 숫섬에 담는것이 아니라 녀마로 꾸어맨 푸대에 담어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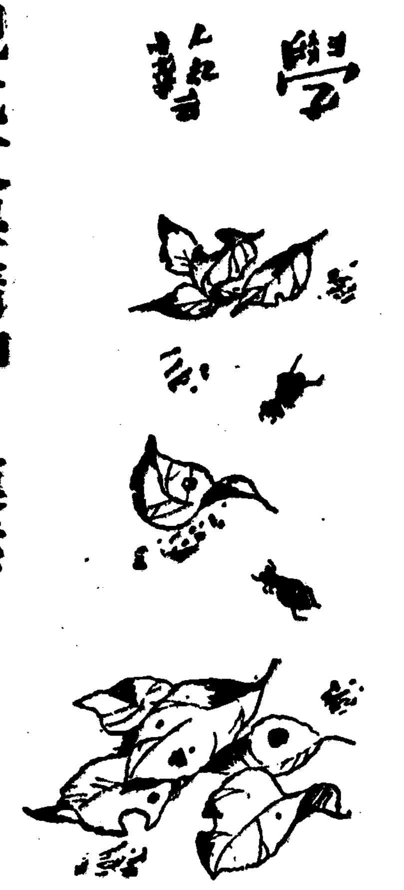
◇…그다음 여테리의 한복판에잇는『아부루치』산속에서 나무를해가지고『스칸노』라는촌에 와서 팔고가는 부인네들입니다치 쪽 이와 비저한것으로 경도지방에는『오ー하라메』라고해서여시 이러케 나무를 이고와서따는부인네들이 잇습니다。

◇…역시『유고슬라비아』나라『사라에보』의 거리에는 매일 나뭇장이 섭니다。나무꾼들은 외통에 장작을실코 산에서 이장으로 내려와서 팔고갑니다。그런데 우리조선장작단에 대면 적지요。

◇…천에 예수께서나신곳『예루살렘』의거리에는『아라비아』사람이 락타등에 나무를해실고와서 팝니다。

◇…지금도 자기나라사람끼리 전쟁을하고잇는『스페인』이란나라『세빌라』의 거리에는『안달루시아』사람의 숫장사가 당나귀에 끌고다닙니다。당나귀등에는푸대에담은숫을실코 숫소쿠리에다라서 파는데 이나라에서숫 이러케도 빗삽니다。

學藝



現代文學精神의模索

―그意慾의레아리즘的燃燒論―

(三) 安含光

「괴테文化」의擁護者의 한 彼等의情熱은 過去의安價한 甘夢에서 뿐저나와 政治的文化 哲學에 숨을대이고잇는 이지음 이러한攻勢에對한 抗拒로서 出發되엿슬러인 Ⅹ매니즘의擁護論者, 氏等이『高貴한藝術道』(?)의이름미에 藝術의眞實한永遠性을 否認 侮辱하는 오늘의꼬―스적한方法이라는것은, 現實描寫의 正確한根本的條件이되는것만 이아니라, 그는 同時에 正當한 世界觀을 完成하는方法도된다는

가운데는 生新한歷史的指導性이 自己스사로 主動的地位에서 書籍되고 또 具體化되여지는바잇스리라잇는다.

原則的約束이 現實面에서 闡明되고 또 具體化되여지는바잇스리라잇는다.

나는 아페서, 現今에잇서 喪失한故鄕을 탈환코저하는 Ⅹ매니즘의 明日에로의 展開가 반듯시 的方向에로 統一되여지리라고 樂觀할수도업스며, 그러라 리라는 悲劇的態度를 가질必

天上

天下唯我獨尊을말하고 藝術家萬歲를高唱함에 依하야, Ⅹ매니즘의名譽가 確保되고 또이따의文學이 昇華될수잇슨것이라고하면 그래 公言이말하는不安, 苦惱의精神이라는것은 大體어듸서잡어온 妄偽된文句이냐!!

이와가티 Ⅹ매니즘의 朝鮮的論說에는 言語道斷의 醜雜相만이 表示되여잇고 이와同時에朝鮮文學의廢敗相을 더욱 深刻케하고잇슴도 事實이다.

그러라고해서 Ⅹ매니즘의 世界的表徵 即 그가 表徵하는바 世代的苦悶과 意慾과 再建的인 健康한意識에 對해서까지 勝放的態度를 表示할必要는 업다고생각된다.

웨냐하면 그것의 世界的表徵은 現文學의理念과 水火相剋하는 個人的인 別個의世界觀 또는 別個의 獨然한指導性을 갓고잇는 思想體系의것이아니라 今日파가튼 混迷와暗中模索의時期에잇서서 暗中模索하고 理想하는精神이 血肉的인指導性을 渴求하야마지안는過程이고 그와同時에 새로운『삶』에로의 自覺的인 要望이기때문이다.

이러케생각하는立場에서 吾人은 Ⅹ매니즘 및 그와 具體同質的指導性(모랄)은 오로지 行動主義文學의理論에 依하야 그를 實踐하고 그를 武裝하는過程에잇서서만 精彩의面에서 그意慾의呼吸을 傳達할수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意味에잇서 나는 이에 關한 金南天氏의意見과 見解를가티 하는바이어니와 吾人이 이자리에서 한마듸 따저두고저하는바는 그러라고해서 그들에게레아리즘의世界觀을 認識케해야 가지고나서라는 素朴한 注文을 할必要는없는것이나 그는 휴매니즘의過渡的本質을

理解

하지못하는 機械的인 짓이다.

그것은 기계론자다. 바라昨今에잇서 Ⅹ매니즘이 時代的動向의 主要面이되어 버렸다는 事實은 實踐的한 自覺的 世界觀을

[illegible]

愁誰語

◎ 지 용

[illegible]

「知性」의解明

그歷史性과밋自然性

◎ 徐 寅 植

知性은 勞働史 社會史의産物이란말은 決코 그自身이 꼭思惟의 產物이란것을 否認하는 唯史的인 論理的인 것은 아니다。社會는 知性을 制約할수잇다。어서만 知性을 制約할수잇다。

[illegible]

知性諸形態의 繼起는 ...

合理

[illegible]

詩情畫意 (五)

金 埈 詩
李 明 都 畫

자네집에 술익거든 부듸나를 請하시소
草堂에 꼿이픠거든 나도 자네 請하옴세
百年間 시름업슬일을 議論코자 하노라

「一冊」

◀예수 十、十一月號 發行所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教會中央宣道院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定價十二錢

◀朝鮮農會報 第九十七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六錢

◀朝鮮工業協會會報 第五十二號(月刊)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藝術科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金助町三八 日本大學藝術科 定價二十錢

◀週刊太陽 第二十一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ノ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一部 五錢

◀靑年團研究 十月號 發行所京城府壽州通一丁目 一六三 定價一部五錢

◀靑年 十一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가톨릭소식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教會聖潔教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農民生活 十一月號 發行所平壤府新陽里三九 崇實專門學校內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基督敎報 第一三三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로-마字 十一月號 發行所東京市麴町區 丸ノ內三丁目一二 로-마字ひろめ會 振替東京九一一番 定價二十錢

◀高麗公論 十一月號 發行所開城府東本町 高麗公論社 振替京城五〇一九番 定價一部十錢

◀文敎の朝鮮 十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番 定價三十錢

◀風俗半島 第三輯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京城商業株式會社 定價二十錢

◀子午線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觀音町三九九의八 子午線社 定價二十五錢 送料三錢

◀商人界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京城商業株式會社 定價廿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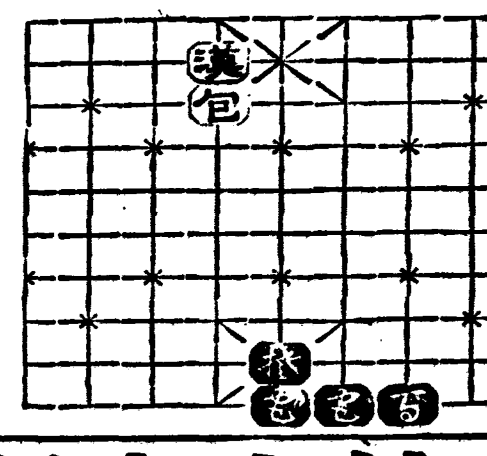
◀商工界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京城商業株式會社 定價二十錢

◀實業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京城商業株式會社 定價二十錢

◇博譜大集 33 (問題)

◀楚가이기는수▶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진수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明日紙上에 發表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어서 보십시오 (問題課)



性記

古今이相異한 字義의變遷

性 精力衰弱과 器障害에는 無能即快

性慾學大家 日獨醫學博士羽太銳治創製
生殖腺內分泌素・純性호르몬劑
キング・オブ・キングス
먹는그瞬時로情感이湧出하야
絕望에서歡喜로一變할것이다

性慾減退와微弱性器의治療原理

發明者 羽太先生談

一般成年男子로서・어떠한衝動으로 性的興奮을밧게되면 그에따러 性慾이發現해지는同時에 性器는 곳强直膨大의作用을이르킨다。이作用은 우리人類의本能인 生殖能力을 發揮하라는生理的現象에 지내지안는것이나 한번醫學的으로 解剖觀察하면 그의原因은 大腦、脊髓、末梢神經의聯合支配로因하야 性器海綿體에 血液이集中케되여 充滿해지는때문이다。

强性에힘써라

注文은本舖로

仰天嘆息하든陰萎가다나엇다

(淸津) 具 烈 會

얘기라는別名을免케되엇다

(京城) 金 花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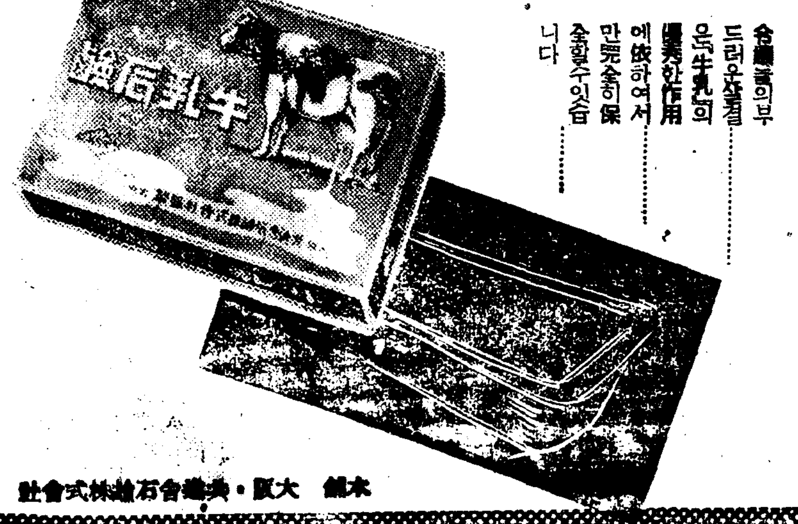
애절초절하든早漏가다낫다

(仁川) 崔 秉 鶴

牛乳石鹼

健康을泡沫로길르는!
令孃의柔肌에・가장安心하고使用할수잇는高級石鹼!

牛乳石鹼은……
그含有한牛乳性分, 獨特한整肌作用으로본바탕부터살결을어여뿌고健康하게길릅니다!



本舖 大阪・共進舍石鹼株式會社

佛蘭西映畫界의 人材禁輸令

藝術家의渡米防止策으로 씨네마聯盟管理局에서發表

이곳에서는 外國映畫의輸入禁止로 問題가 이러나고 잇는데 佛蘭西에서는 그나라에서 俳優나監督들이 米國으로건너가 버리는것을 防止하기爲하야 一種의人材輸出禁止令가튼것이 佛國씨네마聯盟의 製作管理局으로부터發表되엿다

그通牒은 다음의二個條로 되여잇다

一、外國에서 일을할때는 一年以上 一作品以上의映畫를 만들지못함

二、右期間中에라도 佛蘭西에製作되는映畫 一作品以上을 協力할것

이通牒은『藝術家技術家職業聯盟』에 傳達되엿는데 다음과가튼說明이 달여잇섯다.

『佛蘭西의藝術家와 技術者가 外國으로 가버리므로 佛蘭西映畫界의情勢는 不利하게되엿다。全佛蘭西의製作者들은 그들의 苦心하야 出世시켜노흔 俳優와技術者를 작고 外國에 빼앗기고잇다 配給業者와 興行業者도 製作者와함께 그들의出世에 多大한努力을하얏다

이努力도 水泡로 작고外國에가버리면 佛蘭西映畫의 今後는 退步의一路밧게업다 以上의 二原則에違反되면 罰則을適用하기로 決定하얏다』

이러한것이 發表되자 佛蘭西映畫界에는 一大센세이숀이일어나고잇다

警官護衛下의 小道具運搬

한가운데서 트렁크를 밧고잇는니가 크라렌스·부라운監督이다 그兩便에두사람의 警官이銃을들고섯는데 깽映畫의撮影스냅이라고 생각해서는잘못이다 警官은 정말警官이며 銃도實彈을너흔것이다 MGM映畫『征服』의撮影中에가르보가 扮裝한 마리-와레스카夫人이 그몸에지니고 나타난다하야 一大센세이숀을이르킨 나폴레옹의寶石(나폴레옹이 生前에愛用하던 貴重한寶石)을 警官의護衛미테 裝甲自動車로 所有者로부터 스타디오에옴겨오는것을크라렌스監督이 밧는場面이다。

이 트렁크속에는時價二百萬弗의 나폴레옹寶石이 드러잇는것이다。

來春獨逸서 카나리아競演會

카나리아의 競演會가 來年一月十日獨逸의 프랑크푸르트에서 開催되기로되엿다。

이競演會는 同國의카나리아飼育者聯盟主催로서 열리게되는것인데 이날은 世界各國으로부터 소리를 하는 카나리아가모혀서 同市는 카나리아의 演奏하는멜로듸-로 파뭇칠것이라고해서 굉장한人氣를 끌고잇다。

본래獨逸이라는나라는 카나리아愛好者가 만허서 貿易이 盛한나라이다。

라디오

十三日(土曜)

◇午後六時 하-모니카二重奏 一、敷島行進曲…瀨戶口藤吉作曲 二、行進曲『騎馬兵』…로-카엘作曲 三、少年團行進曲…宋一九編曲 四、鬪牛師의行列…스-자作曲 五、칼-王行進曲…칼-作曲 六、行進曲『習追擊隊』…金城園編曲 七、觀兵式行進曲…吉本光藏作曲 宋金一坡 九園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力道에對하야 徐相天

◇同七時三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七日)『報恩感謝國民親和』『國民精神作興運動과 朝鮮民衆의時局認識』 南朝鮮總督

◇七時五〇分 (講談)田中德太郎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勇敢한水兵』 鈴美合唱團

…一、[illegible] 가 진양조 二、[illegible] 단가 자진모리 [illegible] 大笑 낭 [illegible] 단、제비뽑은記 伴奏 [illegible]

第二放送

◇午後○時三五分 (東) [illegible]

◇同六時 (京) 童話

◇同六時二五分 (午)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城) 講演

◇同七時五〇分 (東) 同

◇八時五分 (東) [illegible] 指揮鈴木美佐保

◇同八時二五分 古談 安遠의由來 張志浩

◇同八時五五分 伽倻琴散調외併

十四日(日曜)

◇午後○時五分 歌曲 一、羽[illegible] 二、羽衆 三、[illegible] 四、界衆 五、[illegible] 徐山玉 崔竹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一、가을(金) 二、꽃밭(金) 三、밤새울음다가(崔) 四、무지개(金)五、꼬부랑할머니(金) 六、어린음악대(朴、崔) 七、우(安、金) 八、영감님(金) 九、비눗방울(崔) 十、개고리(朴、崔)十一、자장가(金)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金榮熙

伴奏 崔漢順 朴貞姬 鄭昌姬

佛專 權相老

◇同七時三五分 獨唱 一、저산리花園에서 愛蘭民謠 二、들으라종달새의노래 슈-베르트作曲 三、하수연 安基永作曲 四、小夜曲 모스코프스키作曲 五、하이킹의노래 安基永作曲 六、歌劇『사랑의魔藥』中에서 도니제티作曲 七、夜曲 남몰내흐르는눈물 덴사作曲 安基永

◇同八時 [illegible] 一、[illegible] 人生歌 二、[illegible]

◇同八時三〇分 古談 [illegible]

◇同九時 (午) [illegible] 一、[illegible] 二、자진[illegible] 三、[illegible] 五

第二放送

◇午後一時 吹奏樂 (白鳴劇團)

◇同一時二〇分 (東) [illegible]

◇同六時 (京)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城) [illegible]

◇同七時四五分 (東) 라디오드라마

十五日(月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illegible]거리 二、打鈴 三、신아위 四、곳[illegible] 管樂 [illegible] 大笒 方龍鉉 杖鼓 池龍九

◇同一時十五分 家庭時間 學校敎育과家庭敎育 朝鮮日報 徐椿

◇同六時 이야기 朴承浩 事變에 對하야 丁洪敎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三十分 經濟解說 沈天風

◇同七時四〇分 [illegible]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雪의進軍』 指揮 李升學 [illegible]合唱團

◇同八時五〇分 漫劇『獨身主義淸算表』 全景 配役 獨身主義者…金元浩 社會員…張陣 그의妻…高龍女 吳壽惠…尹順善 그의父…金成一 其他 할멈 下人等 서울스테지쇼우-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illegible]

◇同六時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東)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 [illegible]

◇同八時五〇分 (大) [illegible]

◇同九時一〇分 (東)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코-라·나나와 合唱

◇同九時一〇分 一、[illegible] 二、[illegible] 제비제 三、[illegible] 朴玉 尹一[illegible]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講談

大勢已定한뒤의 利害는毫釐之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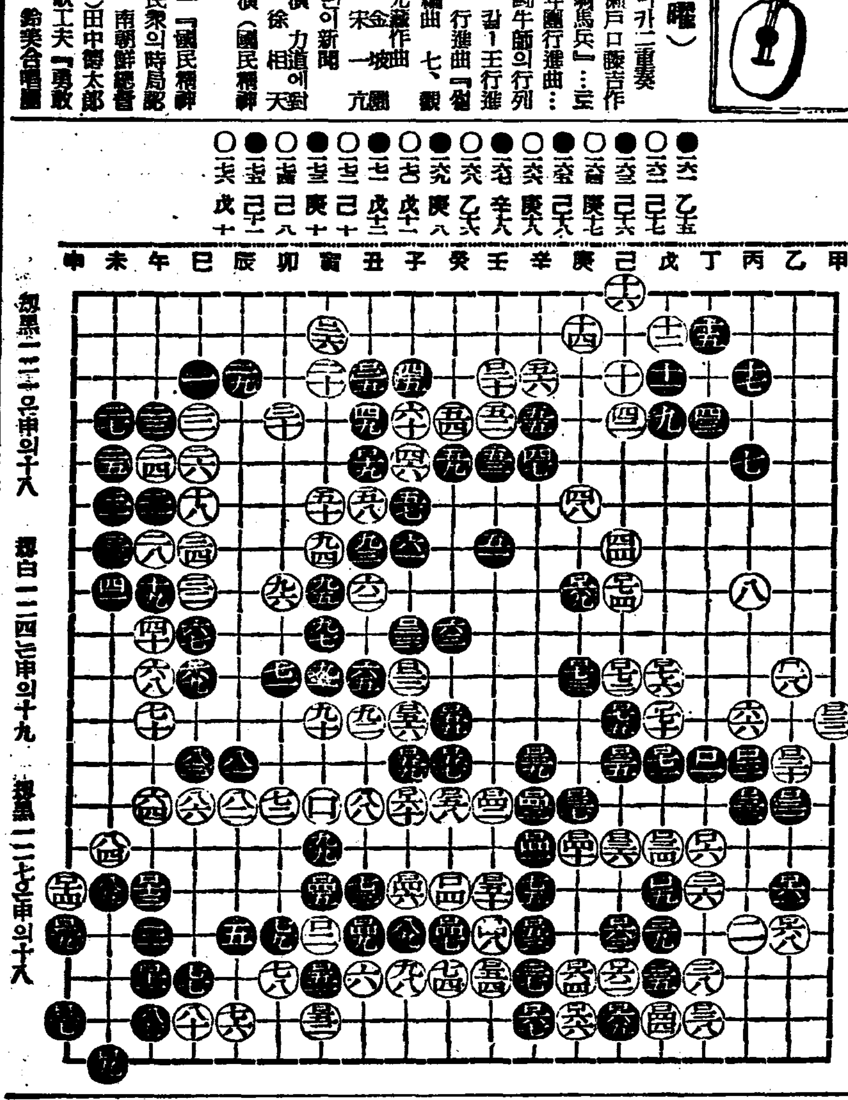
先後에달린得失과 攻擊보다서로定界

國手爭覇譜 (11)

本社獨占

白 丁奎春

黑先 蔡極文



打黑一二三七은申의十八 提白一二四는申의十九 提黑一二七은申의十八

大勢는 이미 決定되여 版圖의 擴張가 서로 分定되엿스니 인제는 交鋒起火할 餘地는업는지라 彼此에 觀形察勢해서 大小輕重에 先後得失만을 計較하게되니 黑一六一 乙의十五는 白軍의 陣地를 窺視하면서 自陣의 擴大策도 되는지라 先着으로는 適宜하나 지금가래서는 이만한 程度의 利害關係은 到處에 잇는지라 白으로보면 구타여 남의 手後을 追隨할 必要가 업스니까 거기에 應하지 안코 다른곳으로 가서 先着을 빼앗는 것이 得策이겟슴으로 一六二 己의十七로 侵入하니 黑도 여기서는 自軍의三石을 連結하기위해서 不得已 一六三 己의十六으로 應하지아니할수업는터이다. 白은 다시 一六四 庚의十七로, 나가니. 이러때에언듯보면 黑이 庚의十六으로손쉽게 處理해 버릴것가트나 利害를 다투는 마당에서는 毫釐가 무서운것이라 그러케되면 白이 辛의十七로 無事히 건너가는同時에 利害得失의差가 넘우 懸殊함으로 이 越路를 遮斷하느라고 일부러 黑은一六五 己의十八을 두고 그래서 白一六六 庚의十八과 黑一六七 辛의十八로 利害相半하고보족 白으로서는 먼저번에 손을빼여가지고온 黑의一六一 乙의十五를 應하지아니할수업슴으로 一六八 乙의十六으로간것이다

본래 版勢로보면 東部中央의 빈터가 오래전부터 그대로 잇섯든만큼 누구나 先着을할것이 이때까지 放置되여온것이 이상한일인데 黑一六九 庚의八은 그以上 더深入할수업는程度의 最大限이라 白은 그점은 防禦하고잇슴으로곤저 一七〇 戊의十一로 노하敵의 侵略을 엿보고 다시 己의十으로나가 中央으로부터 드러오는勢力을 막기에 汲汲하니 본래 中央은 아주비여잇섯든만큼 黑으로서도 侵入할생각보담 어느適當한 地點에서彼此의境界를 定하자는것임으로 手順에 별다른 障碍이업시白一七六 戊의十까지 이르럿다 (赤松子觀戰記)

中篇小說 人生特急 【35】

盧春城作 崔根培畫

出發(三)

성춘이 양복점을 경영한후로는 그를하로가 멀어라고 차저오든 친구들도 모두자취를감초앗다 친구로는 어느 쥐색기하나 그를 찻는놈이업섯다。

『돈이다。세상은 돈이다!』

하고 또다시 성춘은 생각하엿다。그는 지페를 한장을 손에 노코

『이놈이 세상에서 이러케 대견위를가젓다!』

하고 이상한듯이 바라보앗다。세상은 모다지전풍치로 뒤웃이상각되엿다。성춘은 문화사업이니 자선이니 할것업시 모든 지금을 해서라두 돈을 모든것이 제일이라는것을 다시금 생각하엿다。

『금전 제일선……』

성춘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출발을하엿다。

그는 자기가 가진 온갓수단과 노력과, 재조를 다하여 양복점경영에、대활동을、계속하엿다。거리마다 광고판을 세우고 팜푸렛과 은행과 회사로 다니며『할아버지』하고、고개를 숙이며、주문을맛고 각학교로、다니며 제복주문을 맛는등 그는그가 할수잇는 정도까지 온갓노력을 다하엿다。그리고 성실봉사주의로 갑도싸고 물건은 잘 만들어 일반의 호평을사도록힘을다하엿다。이러케 눈물과 땀의 노력을 다하는동안에 어느덧 세월은 이년이라는시간이 지나가 버렷다。

그동안에 노력의갑은 헛되지안어 성춘은 재조조케 돈만원이나 손에쥐게되엿다。원래일하기를조하하고 떠버리기를 조아하는 성춘은 맹맹사람을끄러 삼만원자본의『고려인쇄회사』라는 한가지 사업을 또시작하엿다。양복점을하고 인쇄회사를하고—그는그야말로 눈뜰새가업시 대활동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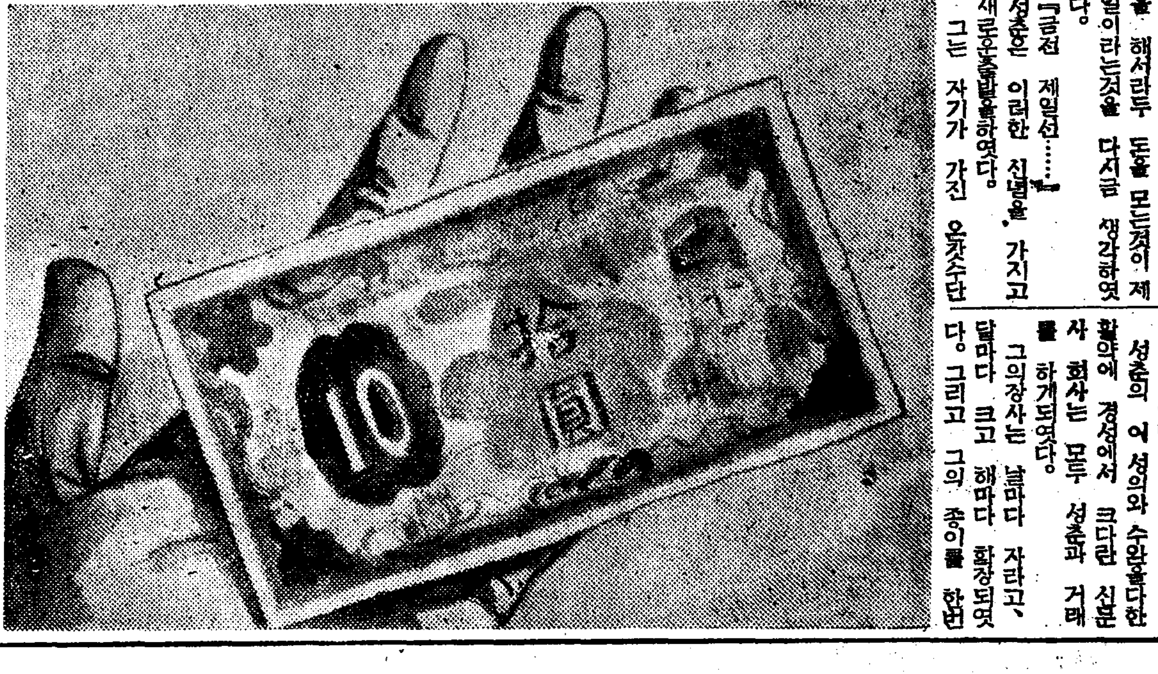
그는 제일착수로 각잡지사와 신문사의 중요간부를 차젓다。그다음에는각 사숭역을 차젓다。그리고 성춘은 무삼재조를 가젓든지 그가 한번다녀간 잡지사 신문사에서는 모다 그의거래를 하게되엿다。성춘은 세상이 모다 돈이요 또는 성공이라는 괴의 결정인것을 잘알기때문에그가 예전 다대간 신문사 회사 잡지사 간부들은 그의성의와근성과 수완에 탄복하고 또는그의 예모잇고 씩씩한 사교에도 다 칭찬하지안는 사람이업섯다

『성공비결(秘方)—성의와근면은 언제나 이긴다는 그의신비려운 낙시에 모든사람은 걸리지안흘수가 업섯고 또는 걸리는것이 정리(定理)엿다 문화사업이나 영리사업을 물론하고 성춘의 어 성의가 활약의 낙시가 가는때에는 호흥하지안는 사람이 업섯다 말하자면 그의 성의와 정열의 화살이 놓히 모든사람의 심금(心琴)을 울수잇는까닭이엿다。

성춘의 어 성의와 수완을다한 활약에 경성에서 크다란 신문사 회사는 모두 성춘과 거래를 하게되엿다。

그의장사는 날마다 자라고 달마다 크고 해마다 확장되엿다 그리고 그의 종이를 한번쓴사람은 칼떡처름 여간해선성춘에게서 떠러지지안헛다。그것은 물건조코 신용잇고 또는비싸지안흔 그의 종이를 그러케 떼여버릴 그런『히스테리』두업는까닭이엇다。

성춘의 재조와 그의수완은 모든것을 맘대로 운전할수가잇섯다。성춘은:『인쇄회사』를 시작한지 오년이 되는해에는 수십만원을 운용할수가 잇섯고양복점두 일오만원의 리익을보게되엿다。그래서 그는 양장히 신축하엿다。그리고 그는 다시앙봉네거리에다가『고려포목점』이라는 장사를 또 시작하엿다 모든것을 적극적으로 운전하고 거기 성의와 수단을 다하여자기의 생명을 걸고 흥패를 결단하려는 성춘의 길에는 모든 곤란이 문허지고 아름다운 길이 열리지안코는 마지안헛다 각 은행의 두취니 리사니하는 사람들까지 성춘의사업을 위하여서는 모두 후원하고 응원하엿다。무삼은행이니 무삼은행이니하는것이 모두 성춘의 것이라면 돈을 얼마든지 갓다쓰라고 간청하다시피하엿다。그리고 성춘이 한번돈을가저가면 그신용이 또한 절대적인 까닭이엿다 덕분은 성춘의 성의와 활약의 힘약이 세상을 이긴셈이다。



헤치마크림

ヘチマクリーム

이것만은

꼭必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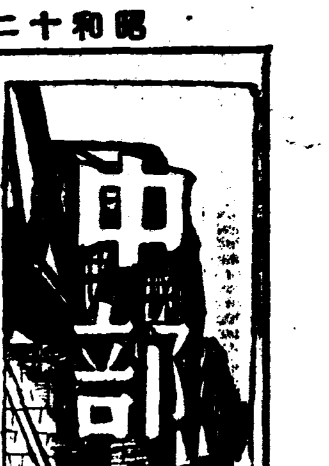
美粧料!

살결에 말할나위업는 融合性과 爽快한感觸、恒常살결에榮養과 濕潤을주어서 거침을防止하고 젊음을保全합니다!

使用하시는동안 정말 조흔줄을알게되는 크림입니다

35錢
55錢
75錢

本舖 東京 株式會社 近源商店



負擔輕減을目標로 日常生活再檢討

지난十一日, 江原道各界當局者六十餘名이會合 生活改善懇談會開催

【春川】시대의진전과 문화수준의향상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영향되는바 적지아니하며 더욱이 비상시국에처하여잇는 우리들로서는 일상생활에대하야 재검토할필요가 만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바인데 즉 전쟁을줄으고옵으는 물가(物價) 점점과중하여가는 공과(公課) 기부금(寄附金) 특별헌금(特別獻金)등 점점늘어감으로 거듭곤란을조자업스며 이와가튼현상에처하야 제일로 곤난반는자는 세궁민으로 봉급생활(俸給生活)하는사람이데 이 제반사정에 감하야 지난십일오후한시부터 강원도당국자 유지 여명이 도회의실(道會議室)에회집하야 생활개선간담회(生活改善懇談會)를개최하엿는데 대체로 의된것은 음식물(飲食物) 거주지(居住地)더욱이 교제비(交際費)오락비(娛樂費)등을 특별히절약할이 가하다고 상론되엿스며 제일착수제안(具體案)은 삼길사회주사(三吉社會主事)에게 일임하야 다음회의시까지 발표토록되엿다한다 그런데 도간부에서부터 이와가티웨치는 소래가나오니만치 그영향되는바 적지안흘리라고 일반은주목하는바라고한다

蘇萊面서도旗行列

【蘇萊】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서는 래원(太原)함락의전승하기위하야 장엄히거행하엿다 지난십일오후구시 소래공립보통학교 아동사백여명을 비롯하야 각관공서직원등 유지인사등 수천의 일장기가 흐르는 소래시가에 만세소리에 ... 하는 소래시가에 ... 를 거행하엿는데 장사진을 보이는 가운데 만세소리는 시내를 흔드러 국민의의기를 소리시키엿다한다

昏睡中에暴行 踪跡감춘隣人

【仁川】김리상볼고인는 묘령녀자에게 폭행을가한후에 도주한청년—부천군 계양면 효성리(富川郡桂陽面孝星里)이백이십번지 김씨(金氏)(一七)는 그이웃리천자(李氏)(二〇)의 행상대로 강간당하엿다하는데 청년의 ... 하다는데 사실을 제기하얏다는데 지난시월이일 김씨의하면 ... 소를 제기하엿다 ... 취조하는 ... 것이라한다

穀物出廻를機會로 詐欺賭博團出沒

仁川署에서 一網捕盡

【仁川】작금인천부두에는 매일출회하고잇는정조가 만타서에달하야 잡곡상들의키고잇다는데 이때를리용하야 출몰하는사기도박단이잇다—지난 십삼일오전이시경 부내 도산정(桃山町)방면에서 검패산(金候山)(假名)외에 이명을 사기도박협의로 인치취조중이라는데 랍분한바에 의하면지난삼일 충남(忠南)당진(唐津)김모(金某)(三)라는 노인이 정조대 일천백여원을 수입하야가지고 물건을사라고 부내를배회하든동 그내용을탐지한 그들은 강언리설로 피이여 도산정공원에까지 끄을고가서 사기도박으로써 이를전부편취한 것이라는데 그내용은 지내령시 ... 문지를 지폐형으로 베이여 이를얏면에 실원지폐를 붓치여수만원의 지폐뭉테기 흉사히만들어보히여 욕심나게 한뒤에편취한것이라는데 범행은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가하나에만 끗치지안코 계속취조중이라한다

原)함락을 기념코자지난구일 전승축하와 아울러 삼국방공협정(三國防共協定)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낫에는 기행렬과 밤에는축하연과 제등행렬을하야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敬老愛幼會盛況

永登浦教化區主催로

【永登浦】영등포교화구(永登浦教化區)에서는 십이일오후 한시부터 연예관(演藝館)에서경노애유회를 개최하고 조선기념품을증정한후 학교생도학교유치원아동등의유희가각 연예등으로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應召兵士의 家族慰問

藤澤道視學官이

【永登浦】경기도시학관 등택수삼랑(藤澤秀三郎)씨는 십일일오전십시 감자지사(甘蔗知事)를 대신하야 시흥군청(始興郡廳)에이르러 농천군수(能川郡守)의 안내로 편내서이(西二)군자(君子)수암(秀岩)등각면에서 내지인출정의 용소병사의가정을일일이 방문하고 위문품을 교부한후 정중한위문의 인사를맞치고 돌아온길에 안양

始興各面서도 敬老會를開催

【永登浦】시흥군(始興郡)에서도 각면의실정에따러 흥은부락공진홍회에서 각각고령자를초대하야 성대한경노회를 개최한후 흥홍한기념품을증정하고 구경을 갓다는데 금년에는 밤

梨花桃花滿發!

蘇萊面에奇現象

【蘇萊】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는 요사이 일기가 봄날과 가티 온화하야 이산저산에 진달래 철쭉꼿이 만발하야 봄철과가리 삼삼오오 작반으로꼿구경을 갓다는데 금년에는 밤꼿이 세번피엿스며 이화도화가 만발하야 소래면에는 때아닌재봉춘으로 역사이래 처음보는기후라하야 일반은 봄의가 분분하다한다

江華서도戰勝祝賀

【江華】강화군에서는 태원(太

旗行列과 提燈行列 (上)太原陷落을祝賀하고자 (下)中國臨時政府에서는 지난十日밤 ... 旗行列 ... 을 行하엿다

正租共同檢查場

開城府外德岩里에新設코 오는廿日부터實施

【開城】기부개성축산조합회(開城)에서는 정조(正租)의생산량상과 품질개량을 도모하기 위하야 봉동간 정조공동수검장(正租共同受檢場)을 시설하고 포장, 수량등 세심한부분까지검사를 단행하리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오는이십일부터는 부외청교면 덕암리(靑郊面德岩里)"야다리"부근에 검사장을 신설코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기로되엿다는바 금후개성에추수되여드러올정조(約十萬叺)는 한가마니에오전식의수수료를내고 강제검사를바더야될것이라본다

開城女子는長壽

男子의倍로約九十人 高齡者總數는百四十六人

【開城】경로애유(敬老愛幼)일인 지난십이일을당하야 개성부내필동일오후한시 만월공보(滿月公普)강당내에서 성대히 거행되엿다 이날초대바든 남녀고령자는 십세이상의장수자 위안초대회는 자의배나 더만타는것을 일수잇다 그런데 전기일백사십륙인의고령자중 최고령자에게는 특히 은잔(銀盞)『온수저』의 표상수여식이 잇섯는데 표창을 바든이는 다음과갓다하한다

池町二六一 金干金(女)九七歲

宮町一六二 李瑞亮(男)九三歲

伊川郡民熱誠

晝食을굼고獻金

【伊川】점심을 먹지안코 절약하야 한용금을 국방헌금을 한소국민들의 적성이잇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一) 지난칠일 이천군동면정동리(伊川郡東面定洞里) 주경진(朱景鎭)의 가족 오명은 점심을 먹지안코 점심대오십전을 황군위문금으로 동면주재소를거처 헌금하엿고

學事視察團出發

京畿道에서南團體二十名

경기도사범학교동화교원 일본二二(?)—날마다 긴장한가운데에서 군내지시찰단일행 열명은 암천(岩瀨)지사의 인솔하야 지난십일일 상주간예정으로 경성을 떠나고 보통학교급생지도학교교원 일본내지시찰단 열명도 십사일최농(農)시찰단 열명이 인솔하야 삼주일예정으로 출발한다

민의 생명재산을위하야 긴장한가운데에서 날마다 애를쓰고잇는 이천소방조원(伊川消防組員)은 생활비를 절약하야 십일원이십전을 국방금으로헌

平康金花間에 二回運轉斷行

【平康】경춘철도주식회사(京春鐵道株式會社)에서 경영하는 춘천(春川) 평강(平康)간의 여객자동차를 정기운전하야 교통의 편리를도모하고 김화(金化)와 평강사이에는 매일일회정기운전을하야엿는데 이것을 이번에 교통기관으로 편복을 꾀하신코저 일반존님의편리를도아 각교통기관과면락을 취할수잇도록 김화와 평강사이에 매일정기이회운전을다욱과가튼 발차시간으로 오는십이일부터 정기운전을 하기로하엿다한다

平康—金化間 發着時間

平康一回發 午前九時十五分

同 二回發 午後一時十五分

同 一回着 午後一時十五分

同 二回着 午後五時五十五分

(十一月十二日부터始作)

三, 지석을홍보(?) ... 주엇스며 ... 일을혼 ... 근면불개한 ... 에 ... 반자성 ... 존미시(水村面)의 ... 국도의 ... 는소식을 ... 어 눈독 ... 적기 ... 어의가려 ... 피려하라 ... 대한인식 ... 수잇다한다

少婦의飮毒自殺

媤父의反對와등살로

【開城】추상에 입지는소리 소올음만! 되요히 더머꺼지는달빗과함께 한천의 저승길을떠난 가련한일생이잇다 때는지난십일밤 나무조소 경부북본정(北本町)칠백이십부번지 최대일(崔大一)(假名)의 애처김봉녀(金奉玉)(二)은 집안사람의 업는조용한틈을타서 이력의 수면제를먹고 잠자듯고요히 죽고말엇다는데 그가죽음의길을 다리게된것은 이미 구력지임이라 말이업스나 일즉이엇스나 랄편한바에의하면 남편의 아버지가알고도이를반대하며 때로는 봉당(?)이 잇섯다는데 더욱 최근에는 그들에게 경제적여유를 조곰도 주지안코 압흐로 살림이막연하고 다시기생노릇을하자니 동무들과 세상에 두번놀랄것이 될것이 정말죽기보다도시러 그와가티 죽엄으로써 모든괴로움을

京畿警官異動

경기도에서는 십이일부로 다음과가티 경관의이동발령이잇섯는데 경찰서장으로는 풍이서장과 려주서장이 서로 바귀엇고 경부보급으로는 강화와 김포에서 서로 바귀엿다

驪州署長 警部 士師 忠作

楊平署長 警部 古賀 新作

江華署 警部補 昌庭 ...

金浦署 警部補 ...

江華署 ... 命합

洪城檢事來仁 屍體發掘解剖

【仁川】지난십일오후오시경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사십팔번 ... 가영계시 ...

女給誘拐犯 男女를引致

십일밤 본정서원이부내, 약초정(若草町)에서 호웅(胡雄)(假名)이라는자와 그의식모 신영숙(申永淑)을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이들은 가혐의하야 학원정(花園町)『가메』의여급을 유괴한것을 자백하엿다고하며 계속취조를 밧고잇다한다

飲水가飮毒

부내원정(元町)이정목 사십칠번지 리완근(李完根)의 ... 은 십일밤오후열시경 ... 를 ... 잘못먹고 고민하는것을 그집사람들이 곳 안국정(安國町)정기섭 치료원 ... 한결과생명에는 관계가 업겟다한다

저 정동호(鄭東好)가 ...

... 여는바 그의시승기리(承基里)공동묘지에가 매장하엿는바지난삼일 ... 라드 ... 의예산서 사와 검사가 ... 에부처 어릿셋(?) 홍성군근방에 줄다하얏는 ... 모가 구타 ... 사실이 잠재하야잇는듯하다한다

花冠 【104】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새정렬 (七)

『자기가 일해 사는것처럼 든든한 생활은 업습니다!』

동욱은 기운이 납니다. 두주먹을 쥐여봅니다.

『내가 일해 나만 사는것이 아니다 남까지 공부를 시킨다』는 처음 나에게 그만 힘이 나기도 한다.

『잇구말구! 올 졸업생에서도 한사람은 학교로 한사람은 평양으로 모두 여학교 교원으로 가지 안헛나? 그러치 고무신곳 어데잇서? 나라만.... 그러치만 갑자리가업스면? 다른데가선 그만수입이잇을수 업는거구.... 돈!』

어디서 한달원 쏘다지지 안나? 그런데 무슨말이아 내힘으로 번돈이라야지..... 파장서생님한테 미리부터 그런자리를 좀려봐야......』

동욱은 갓듯 경영을 여기지 못해 개학도되기전에 학교에전화를걸고 파장선생님이 나오섯느냐고 물엇다. 파장선생님이 나와게시엇다. 곳학교로 겨저만나뵈엿다.

거를 하는 편이 오히려 ... 당엿다. 그래 동욱은

『사실은 엠파 바인봉이 때문이야요』

하고 이처의 이야기는 봉욱이한테서만 꺼내면서 연봉의 사정과 벌서 자기집에 다려다두고 주후지원를 시키고잇는것까지 말하엿다. 파장은 그제야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희상서랍을 하나 열고 인봉의 멸하기지 성적을 보는눈치어다.

『바인봉이....곳흔 재 하는데 ....그런....』

『학교자리가 나면 곡 절 거두룩 해주세요』

『그런 이러지......』

『어떠케요?』

『학교에 새 장화금 오게 엿지 안혀? 그 배얀련씨가 내건......』

『성적이 팬찬흐니 정 다른길이 업스면 그걸 쓰도록 해볼가?』

『왜 다른 길이 업거요?』

동욱은 자기의 가장 귀여운 요맘이 끄히질것 가튼 불안을 느끼다.

『아니 동욱인 첨부터 농촌사업가준데 흥미를 처처 오지안헛서?』

파장은 의외인듯이 여러케못는다.

『네갑자기 학교로 가고시퍼젓세요』

『왜? 농촌으로가면 고생이될가봐?』

『안요』

『학교일이라고 쉬운건 안야 더구나 일생을 교육계에 바치려면 몰라도 그런 각오가 아니면 차라리 우리네 생활형편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농촌으로 가 경험해 보는게 조치 안흘가?』

『저도 흥민 그럿게 더 만혀요 그러치만.....』

『그러치만 뭐?』

『수입이 좀 정확하구 될수잇는대로 만흐럼 가야될 일이 생겻세요』

『수입!』

하고 파장은 잠간 동욱의 눈치를 살피더니

『결혼을하나?』

『아—뇨』

하다 동욱은 펄작 놀리며

『아—뇨』

『그럼? 어런 중역한테 동욱이 일할지되 동욱이본다 더 수입문제가 큰 사람이 만치안허? 동욱인 영남해두조치 안흘가?』

파장선생님의 말슴이 이러케 나가는 자리에서는 인봉의이야

『사정이 딱하다며?』

『제가 취직하면 되지 안나요?』

『글세 그러케된다면 조치만 딱그런 여유잇는데로 취직이될지 장담 못하는것 안야?』

『구지 그럼 뭐야? 장학금이란 그런 학생 위해 두는건데?』

『그건 불운한 돈이야요.....』

『오! 참.....』

그제야 파장은 동욱이가 밴엽혀의 이야기로 한번 차저왓든것을 생각해낸다.

『그러커루 이용하게 될근것아닌가? 그다지 고자식할것업지 안허?』

『실혀요 그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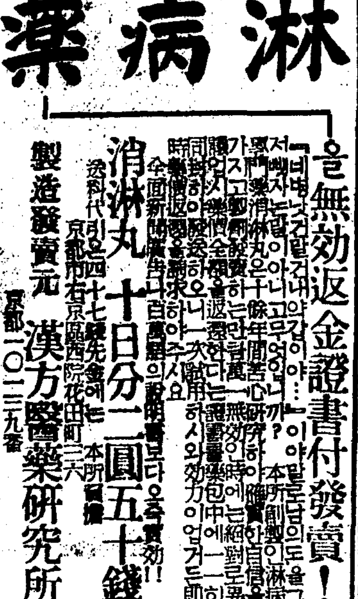
『것두 동욱이가 그돈을 쓰면 몰라두 인봉이야 무슨상관잇서?』

『그래두 실혀요 제가 제힘으로 시켜주고시퍼 끄러내가지구 왜 그사람 돈에다 네겨버려요? 더구나 전 그돈이 불순한것인줄 뻔—히 알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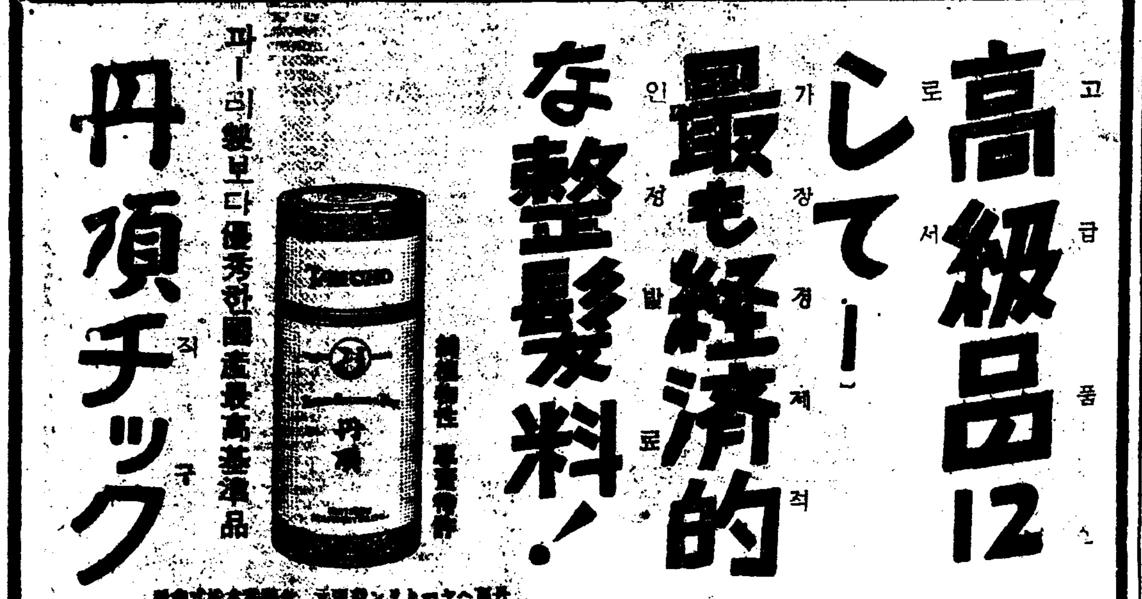
『그건 조아.....그런 생각만은 참서이야. 그러치만 그건 정할 이용일 생각하는 것보다 동욱이 자신의 자존심을 더생각하는것이 아닌가?』

『왜 그럿슴니까?』

동욱은 태연한 자세로 질문가다.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來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學生募集
每月一日新學期開始
滿洲自動車學校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學則送呈
本科 三個月卒業
受驗科 一個月卒業
創立以來十五年 設備東洋第一 就職迅速 在學生百五十名 合格率最高 寄宿舍完備 乘用車及トラック練習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電話(2)二九四四番

急告
朝鮮에도敵機가왓섯다
安心못할明日을注意하라
또何時何處에襲來할는지모른다
一般家庭은毒瓦斯의防毒蚊帳을곳準備하라
毒瓦斯의 被害는 慘酷합니다

戰時毒瓦斯防毒器具
配給豫約募集 (家庭用)
一、配給豫約數量 壹萬組限
一、申込期限 昭和十二年十一月末日
一、申込方法

防毒蚊帳
防毒面
陸軍科學研究所御指導防毒面
其他毒瓦斯防毒面申込所
朝鮮防護研究所
京城府堅志町五九番地(平和ビル內)
電話光三三〇番
振替京城二六五五番
放心은生命의敵이된다
全鮮各郡駐在配給所募集(一郡一個所限)詳細來談又는書信照會하면內容通知

獨逸總生産額

國力의恢復顯著!

獨逸景氣硏究所에서는 最近國內工業(手工業을包含)의總生産價額을調査發表하얏다 總生産價額이라는것은 一工業에 就하야보면 該工業의 生産品價格을 總計한것으로 一例를 纖維工業에 取하면 大體로 三加工部門이잇다─紡績、織布、衣服製造의 三部門의 各其生産高(價格)를合計하야 이것을 纖維工業의總生産高라한다。然하야 表에 나타난것과가티 生産價格을 構成하는 各單位는

生産高에잇서서는 二回以上 合算되는 價格가잇는바 이 總生産價額의算出例는 如左하다。

(一)紡績部門生産價格=A+B
(二)織布部門生産價格=A+B+C
(三)衣服部門生産價格=A+B+C+D
(四)纖維工業總生産價格=三A+三B+二C+D

A=原料品 (二)에 잇서서는 A+B가(三)에 잇서서는 (A+B+C)가 各各原料로되고 B、C、D=各部門의 賃料以外의 生産價格構成單位 例컨대 加工費、利潤等

×

이런 方式에 依하야 獨逸의 工業總生産價格을 計算하면 一九三六年에는 約六百五十億馬克이엇다。一九三七年의 推定은 約七百億馬克이되고 一九三二年에 比하야 二倍의 大이다。一九二八年의 八百四十億馬克에 比하면 아즉도 조금 적다。一九三六年의 工業生産內譯을보면 消費財의 製造工業은 大體如左하다(單位百萬馬克)

新知識

食料品工業 一六、〇〇〇
纖維品工業 八、五〇〇
其 他 一五、六〇〇
合計約四〇、〇〇〇

即約二百八十億馬克으로 一九二八年에比하야 百億馬克이 적다 一方生産財의 製造工業은 如左하다(單位百萬馬克)

機械工業 八─九、〇〇〇
化學工業 四、二〇〇
鐵鋼工業 三、〇〇〇
鑛 山 三─四、〇〇〇

一九二八年에는 四百五十億馬克이엇스니 生産財工業에 잇서서도 當時水準까지回復되지안핫다

×

總生産價格은 前述과가티 價格이 比率을 使用하다하면

同一工業內各部門의 生産價格을 合計한것이오 加工生産價格의 一部는 重複되어잇다。이러한 價格을 除外하고 原料의 生産價格을 計算하면 그 正確한 計數는 얼마나하면 一九三〇年代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總生産價格에 對한 純生産價格의 比率은 如左하다

投資財 四六%〇
其他生産財 六〇
內、石炭鑛業 七七、五
其 他 五四、三
需要에 依한 消費財 四〇、〇
個人的 消費財 三三、〇
總平均 四五、〇

獨逸의 一九三六年度總工業生産價格은 大九百五十億馬克이되고 總生産價格을 一九二八年을 基準으로한 指數로 表示하면 如左하다 生産價格(總生産價格)指數

一九二八年	一〇〇
一九二九年	一〇一
一九三〇年	八六
一九三一年	六四
一九三二年	四五
一九三三年	四七
一九三四年	六一
一九三五年	七〇
一九三六年	七八
一九三七年	八四

(三七年은第一─二四半期平均)

朝鮮米第二回豫想 二千六百卅萬石

比第一回百五十八萬八千石增

十月三十一日現在作況

農林局發表=十月三十一日現在의 米 第二回豫想收穫高를 調査하면 九月下旬以降氣象狀態가 適順이엇음으로 第一回豫想收穫高에 比하야 增收가豫想된다 이제 調査의 成績을보면 作付反別은 水稻 百六十萬四千二百四十七町三反步、陸稻三萬四千百二十八町八反步合計百六十三萬八千三百七十六町一反步、豫想收穫高는 水稻 二千六百萬八千四百三十四石、陸稻 三十二萬二千一百六十七石、合計二千六百三十三萬六百四十五石으로서 第一回豫想收穫高에 比하야 百五十八萬八千六百五十四石(六分四厘)의 增加이엇다

年 次	作付反別 水稻	作付反別 陸稻	作付反別 計	收穫高 水稻	收穫高 陸稻	收穫高 計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第一回豫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第二回豫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二回豫想對第一回豫想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〇割〇分一厘	▲〇割〇分五厘	▲〇割〇分一厘	〇割六分三厘	〇割二分三厘	〇割六分四厘
第二回豫想과前年과의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 昭和十一年以降은新調査方法에依하고 作付反別은 畦畔面積을 除한實際作付面積이다

米第二回豫想收穫高道別表

	水稻 作付反別	水稻 收穫高	陸稻 作付反別	陸稻 收穫高	計 作付反別	計 收穫高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港在米高

新米入庫로大增加

全朝鮮各主要港의 十日現在在米高는 新米의入庫增加에依하야 相當히增加되어 四十六萬七千二十一石으로되어 前旬에比하야十七萬七千二百四十一石、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八萬二千五十七石의 增加量示하얏는바 그內容은如左하다

釜山	六二、二六三
馬山	七、八三〇
麗水	七、九三八
木浦	三一、一四八
群山	五〇、〇五三
江景	六、二三九
仁川	六一、四七〇
海州	二五、八七七
鎭南浦	一九三、四五〇
元山	一九、一三〇
浦項	二、三八〇

佛國銀行 利下發表

【巴里十二日發同盟】 佛蘭西銀行은 十二日公定割引利率을 三分五厘로부터 三分으로 引下한 同時에 證券擔保貸付利率을 四分五厘로부터 四分으로 期限一個年以下의 證券에對한 三十日限의 貸出率을 三分五厘로부터 三分으로 引下하얏다

加奈陀小麥 收穫豫想發表

【오타와經由同盟】 加奈陀政府統計局은 一九三七年同國小麥十月末收穫豫想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一八二、五〇五千부셸

穀類肥料雜貨 荷動增加

上旬局鐵狀況

鐵道局十一月上旬荷動狀況을 石炭의內地炭移入減、鑛石黑鉛의出貨減少를비롯하야 貨車不足等에依하야、七品目의 減少가잇섯스나 穀類는出貨期에當面하야 激增되고 이에伴하야叺、莚、肥料、等도激增되어 雜貨類는前旬에비하야 增加量示하고 本旬分의成績은 三十萬九百七十八屯으로前

正租 一九、一〇五三
玄米 一九五、四二一五
白米 八〇、五四三
雜穀 七五七
計 四六七、七七八

各種別은如左하다

(單位石)

週間大勢

株式

前週末 稅制整理延期 戰局의有利等을 買材하야 東新百五十三圓臺、鐘新二百三十七圓臺를 回復하엿든市勢는 今週初 大本營設置論을 國策으로 內政問題를 憂慮하고 日獨伊防共協定의 逆作用을念慮하며 和平解決이希望된 山東省의 情勢轉換等을 悲觀하야 東京有力側이 賣投하기始作하자 俄然逆轉하야 東新은 忽然 百四十八圓臺、鐘新은 二百三十一圓臺로 俄然崩落되엇다 그러나 이에 一時에 끄치엇슬뿐 그後 米國市場의 回復傾向을 보고 또는 上海의完全陷落明年度豫算膨脹과 인플레豫想等에 이미 上場諸材料도 엇지 强硬的持續에 一張一弛의 小幅浮動을 繼續하다가 週末에다시 少保合에 終始하엿는데 一說에는 內閣改造說이 某一派의 策動이것이 判

明되어 首相은 現狀維持를 決意하엿다고傳하야 樂觀하는편도잇스나 如何튼 齋藤一派를 中心한 東京地場側이 賣込하는關係로 東株西硬의商情을 反復하고 잇는것이 一抹의不安을 주지안는바도 아니므로 大勢買를 主張하는强氣로서도 한번 突込이 잇는後 回復할것이 아닌가보고 잇스므로 積極買도 前의의感이 不無하나 如何히 國際關係 其他를 云云하나 戰局의 決定的 勝利를 보면서 賣迫擊한다는것도 疑問이니 當分은 保合이 繼續할것으로 보고 만약 突込의 機會가보이면 買하는것이 妥當하지안흘가하는說이 有力하다。

期米

무엇보담도 船腹不足이란 大材에 惱하는 小小한弱材는 無効果 天井不知의勢로 阪地先限 三十二圓八十七錢 仁川先限三十圓二十九錢을 市勢도 阪地先限 三十二圓八十七錢 仁川先限三十二圓八十錢 大勢가 높았으나 第一回豫想의 增收를 豫想하는 强세하여 一斷의 日本內地第二回豫想增加量示

生絲

週初부터 海外市場은 多少回復氣味를 보엿스나 思惑이 極度로 萎縮된 時期이므로 利喰以外에는 實物이러고 警戒人氣는 頑强하며 戻

보고 市勢는 反落氣味를 보이게 되어 先限的 昂騰을한仁川은 一轉崩落模樣을 보이게되엇다。勿論 昂騰幅으로보나 價位로보나 또 豊作이란 決定的事實로보아 高價警戒와함께 一時反落狀이되어 相當한一押을 할지모르나 豊作이란것만이 支配할수업는 環境의 强材는 何必 物價高、事變의持續、消費增大에 限하지안코 幾多의 材料가 買方에 有利한터임으로 押目도 一時的이오 結局은 다시 昂騰할것으로 볼수밧게 업스니 勿論 押目買가 妥當하거니와 今後 出廻增加 輸送難의 緩和로 因하야 一轉는 實米의壓迫이잇슬는지도 亦未知임으로 大勢高는 明瞭하다 하드라도 暫時中間波瀾時에 들어가지안흘가생각된다。

綿絲

最高標準價를 發表하게된때로부터 思惑의餘地는 極少幅에 不過하므로 大幅變動은 勿論 論外에屬하는것이어니와 近者 米棉의 低人標標을 보이게된것이 多少 市場을 明化하고잇는듯하다。勿論 米棉도 完全한對策이 確立된것이 아니로되 議會에 알루고 잇는것만큼 議會에서 어떤 對策이 樹立될것으로 期待하는데서 騰人을 보이겟든듯하니 果然안도함

人絹

人絹은 大受難時代를 맛낫다。 무엇보담 船出의 全面的 休止가 目前에보면서 買氣가잇슬까닭이업게 實勢惡化人氣는 漸次濃厚하야 人絹은 어느동안에 當限이六十圓을 割破하야 五十七圓臺로崩落하고 先限도 六十圓大臺를 겨우維持하게되엇다가 週末頭로 化에多少反戾狀이되엇스나 依然反撥力은 鈍重하야 好轉의 兆候이 보이지안는다。어리하야 人絹界의 愈燃은 國産한것을 는 소리까지 일어나게 되엇스나 氣勢改善의 標準은 아직보이지안 아니가 생각되므로 當限理期의 低落를 不容할모양이다

(金剛城)

朝鮮米運賃引上

農村에重大影響

實際로生産者에게轉嫁

朝鮮米運賃引上果然實方의 負擔 即消費者에게 轉嫁될지 或은 生産者에게 轉嫁되는지 이 問題는 이번 運賃引上에 반드시 轉嫁되는가 重視되는데로 大阪側代表의 一人은 買方에게 轉嫁될것이라고 稱하나 되리라하야 注目된다

三十六圓引上!

十二、一月暫定運賃도決定

米輸送運賃協議會는 十一日에 이어서 十二日도 午後一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開催하고 朝鮮米輸送協會代表、內鮮荷主로부터 委員을選定하야 總督府로부터 飯坂米穀課長、岡田遞信局海事課長等臨席下에 協議한結果 總督府當局의 居中調停에依하야 午後九時半에至하야 大體如左히決定하얏다

一、運賃

자 十二月中暫定運賃

	新運賃	(單位圓)
仁川 阪神間	一〇五	一〇引上
鎭南浦京濱間	一四三	三〇引上

나、一月中暫定運賃

仁川 阪神間	一一五	二〇引上
鎭南浦京濱間	一三三	二〇引上

다、二月以降七月까지의運賃

仁川 阪神間	一三一	三六引上
鎭南浦京濱間	一四九	三六引上

一、揚地와積地의 賃開는從來대로

一、割戾는從來대로五圓으로함

一、配船의責任은 昨年度의各月別各港別輸送實績의四割二分增까지의數量에對하야 責任을鮮米輸送協會에서負함

그리고 十三日은 午後一時부터 協議會를 續行하고 運賃의 元着拂問題、空席運賃의 負擔方法 配船의 具體的對策等에 對하야 細目協議를 行할터로 鮮米輸送協會 內地側代表、內地荷主는十三日中에 京城을 떠날豫定이라한다

配船四割二分增

實際責任不可能

朝鮮米運賃은 暫定運賃 本運賃이모다 決定되엇는데 決定運賃은 輸送協會側의 要求六十圓引上에 對하야 總督府의 調停에依하야 右要求額을 半減하고 大體本運賃에잇서서 三十圓引上한것은 荷主側의 成功으로 볼수잇다 輸送의 責任에잇서서 鮮米輸送協會가 前年度輸送實績의四割二分增까지의 數量에 對하야 輸送의 責任을 負한것은 近海海運의 船腹이 半減된 今日에잇서 큰英斷이나 時히『各月別의輸送實績에 依한다』고한것은 十二月파가튼 低運賃時에 一時移出이 殺到됨을 防止한다는意味

經濟寸鐵

○

朝鮮米一回豫想은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四十二石이란 無前大豐이엇는데 二回豫想은그보다도 百五十八萬八千石의增加이니 超大豐作

○

前年實收보다 大百九十二萬九千九百三十三石 約七百萬石의增收

○

이런豐作이면서도 穀價가比較的高價를 維持함은 多幸일지저

○

米穀金融은 鮮銀이 無制限으로 貸出하리라하니 우선安心되는일이나

○

船腹不足해서 運賃이 百石에 三十六圓이나 大幅으로올라 農民에게 事實上으로 轉嫁되겟스니 걱정거리

○

有賀前殖銀頭取 今日退京 十九年이란오랜동안 巨頭노릇하든朝鮮을떠나는 感想이깁흘듯

銅使用制限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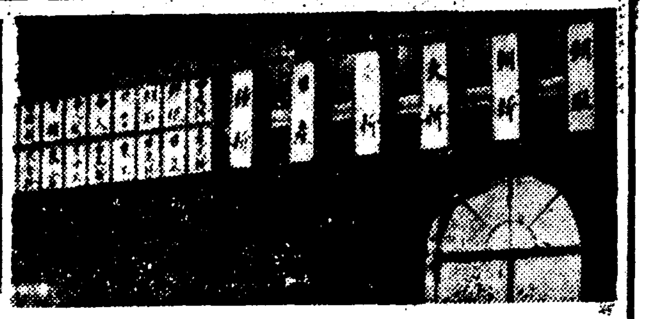
朝鮮도十五日施行

銅鐵의節減과 併行하야 十日內地에서 施行된銅의節減을 目的으로한 銅使用制限令에順應하야 總督府에서도 十三日府令으로써 公布하고 來十五日부터施行키로되엿다 同令에依하야 建築物의 屋根 旣種 化粧張壁

突叉는 排氣等으로서 銅을使用하고저하는者는 道知事의 許可를 受하야함을 要하나 一建築物에對하야 百瓩을 超過치안는 銅의 旣及 이에附屬한 樋에使用하는 境遇는 此限에不在라한다

朝取證券部 立會場新裝

朝取證券部立會場은 大正十一年新築以來 改善된적이 업서서 立會場



狹隘其他不備한點이 多한것을 遺憾으로여겨 今夏以來數萬圓을投하야 立會場擴張及 新裝을 整備中이엇는데 最近 이것이 完成되어 純黑札의 新裝外에 內容的에 近代的 取引所로서 遜色이 업게되엇다。이에 竣功을自祝하는 意味에서 十三日前場後 竣功式을 擧行하엿는데 當所理事長의人事、新田委員長人事等이잇고 今泉記者俱樂部代表의 祝辭가잇슨後 祝杯를들고 式을 閉하엿다 (寫眞은 新裝의立會場)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仁川期米先限	三六六〇	七六
大阪期米先限	三三六五	六六

	今日	比前日
京城三等米一石	三五六〇	不變
米(白) 一等	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價三等 [illegible]
古米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朝取新	[illegible]	一〇
東新	[illegible]	六五
鐘新	[illegible]	一〇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綿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株式 一張一弛 堅保

今日의市勢 【十三日】

前場鈍狀

昨日低寄後反强하엿다가 다시反軟하야 不味商狀을보여 今朝寄付도外電關係等으로氣迷漸甚하고 東京의下稍로 亦是軟弱하엿스나 實物다운賣物도업고 結局形勢觀望의 態度로 仕手傍觀이 繼續되어 市勢는多少 底堅이엇스나 거의 不動의 保合을 繼續하다가 東新百四十九圓七、鐘新二百三十二圓三으로 今週를 마치고後場은例休이엇다

休養期의保合

아침寄付가 强한듯하야 回復될듯이 보이다가도 大引은 軟化하야 弱하게되고 또 그後는 다시 反强하게되는等近日의市勢는 結局保合市勢벗듯을 뚜렷이 보이게되어 昨後場에 뒤이어今朝寄付는 軟化하는듯 하엿스나 다시 反戾하는 光景인데 이를 要컨대 戰局進捗等의 强材를 云謂하고 群衆이 買寄하며 또一方은 國際關係(念慮)로 賣込도하

市場六感

(株)……朝强夕軟、夕强朝軟으로 結局 市勢는小幅保合▲減配必至로보는 東新이百五十圓을 維持하고잇는것으로보면 戰勝人氣가 强한證明▲이리하야 賣餘地가 업기때문에 閑散케되엇스니 動機만보이면 上向한다는 說도잇서서 弱材料에는 鈍鑛될대로되어 底調는 徹底하게 된듯하나▲그러라고 將次年末이 압헤잇고 議會開會가 迫到하야 豫算問題도 씨그러울모양이오 事變終了期의 透視困難은 무엇보다도 積極買를 躊躇케하고보니▲賣餘地가업는줄 알면서도 買할것가업는 光景▲이런 意味로보면 實餘地가업스므로 消極的買는勿論 妙味가업스나 上邊時期도 前早인듯하야 結局이保合이 相當한長期에亘할것이 아닌가도念慮된다▲一部에서는 無市勢를 豫想하는이까지잇스니▲當分觀望外無途인데 小口로 行動하는이는 遊浪的小幅主義가 오히려得策? (金剛城)

(米)……今日로써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發表가 完了될 모양인데 總減收은 百萬石程度?◆朝鮮米는 今日發表되엇는데 果然百五十萬石以上의增收!◆何如間 日本內地米의減收率과 朝鮮米의增收率가 거의同一한數字라하면 結局의 材料的相殺?◆日本內地米의 減收는 朝鮮米의 增收에 依하야 完全히 相殺되고 오히려 얼마간 多少나 增加할것이 아닌가하는 見解도잇스니 朝鮮米의 增收는 依然 內地米의 減收를 相殺하고도 남음이잇다는 意味에서 各保合에서는 朝鮮米의 增收가 主題가 될 것이다▲此等는 內地米와 朝鮮米의 比較에서 그러하야 朝鮮米는 얼마나 增收될지 모르나 그런데도 依然 增收問題는 重大한 關係로서 輕視되지는 못할 것이오 日本內地米의 減收가 確實시 遲延되는 搬送業者의 事情에서 移出은 어렵게되는 實情이라 아직은 市勢로서 依然히 强硬하야 賣方으로는 그리 쉽게 내려가지는 아니하리라는 것이 一般의 見方이다 (雲山)

有賀氏十三日退京

前殖銀頭取有賀光豐氏는 十三日午後二時四十分發 京城을떠나 渡東하얏는데 東京까지 渡邊殖銀頭取가 重役代表로서 三宅檢査課長이 行員代理로서 同行하는 外에 高松秘書課長 尾西秘書도渡東하며 松井釜山支店長도釜山서부터 同行한다

東阪市場閑散

東京長期賣買高는 期初來一日平均十三萬八千餘株이든것이 昨今은 겨우 五六萬株를 버서나지못하고 지난五日에는 二萬六千九百五十株의 記錄的低下를示하야 至極한 閑散商狀인데 勿論 外來注文中絶때문이 分明하

나 結局大衆노릇이오 大仕手는動靜氣色이 보이지안코 市勢는暫時休養期에 들어선 感이不無하다。戰局을 買한다하나 事變이 一、二日로終了될것이아닌 以上 지금부터 買하기도 어렵고 또 內政問題 外交問題等을 云謂하나 이또한市勢를 움직일힘은업서 贊否한外에 賣買間에는動機에接하지안코는 行動키 難한것은萬人이 다認定하는바 어어서氣迷가 漸深하게되는것도 또한 理外의 일이아니다。이리하야 결국 新動機에부드치기까지는 結局 小幅保合圈內의 一張一弛를 反覆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國債 無風狀態 不動

【東京電話同盟】 國債는 年末金融樂觀을 反映하야 叢頭順調로 推移되고잇스나 內政念慮濃厚인때라 新規賣買가 적어 아직氣配는 依然無風狀態에 陷하고佛貨 歲分關係로 五十錢高를示하얏다

▲二回四分 一〇一、三五▲二十三年物 九八、三五▲佛貨四分一 九五、六〇

期米 增收薄響 底强

前場底强

今朝는 日本內地米第二次發表一千九百十一萬七千九百八十石인 第一回豫想보다 의二分三厘減을示하야 阪地는三十二圓五十六錢인 四丁高로當地는 當二十圓二十錢인 五丁高中限은 二十九圓八十七錢인 十六丁高로先限은 二十九圓八十一錢인五丁高로 場을始한後阪地二節六十錢인 四丁續高를伴하야 二節八十五錢으로 三錢까지 小弛하엿다가阪地六十一錢으로 小戻하얏든바金太量 中心으로한 某强氣側의買運으로 九十二錢까지 跳返하더니 阪止五十八錢을署스음에 朝鮮第二回豫想增加發表를보앗스나 織込濟로 거의無響이어서 少弛裡八十三錢에 止場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界情勢一察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은今日로써 最終發表를 하게되는데 大體第一回豫想보다 百萬石程度의 減收를 豫期하는모양이요 朝鮮米의 第二回 豫想은 增收로 發表되엇는데 어느 前記와가티 큰材料가 되지못하고 目前의現象으로보면 日本內地는 産地의 出廻가 遲延되어 集散市場은宛然飢饉時代와 如히 渡米蒐集難의 狀態를 呈하나 그러나압호로 時日을 經하는때는 結局出廻가 旺盛할것이므로 더떠노코 買過한다고 할수업스며 朝鮮은 産地의 出廻가 旺盛한데다가 雪上加霜으로 輸送力이 不足하야 集散市場은 實勢의 壓迫을 밧는狀態이다 여와가티 兩地의 事情이 各異하나 그러나 結局은 産地農家의 態度如何로써 大勢를 左右할모양인데 압흐로 公課金의 納入關係上 반드시 換金急의 一時的出廻를 보이지아니할가한 商談도업지아니하다

地方分의 減少가 非常히 五十萬石이 넘어지는 二十一이 減收라 할지라도 約百萬石減少가 아니겟다 그리고 今日發表된 朝鮮米의第二回豫想은 果然 二千六百三十萬六千六百五十四石 即大分四厘의 增加量示하엿스니 日本內地減收를 相殺하고 어느이의 意外 增收에 相殺되고 이 數字는 큰 材料化하지 못할 모양이 어느 듯 保合狀態가 繼續되어 價位가 高度로 올랏다하나 事變의 大豐作을 보고 盲目的으로 買進할수도업서 暫時 保合이 繼續될것도 갓다 果如何?

正米 消極賣買 保合

京城保合

依然輸送不緩和로 大口商談이 업서 市勢는保合이다 ㊤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 一二、三五

仁川保合

朝鮮第二回收穫豫想은 一般豫想대로 一五八萬石臺增收로 發表되어 어미織込濟이나 依然한環境不改로 一般으로 市場人氣軟弱裡에 保合相場을呈하고잇다 ㊤穀良三等 三〇、八〇 四等三〇、六〇 銀坊主三等 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 一二、一〇 四等三〇、多

釜山不變

市場實物 五千叺內外로 意外增加하야 市場人氣는 明朗化하야 比較的賣買도 조와스나 아직 不振한 市勢는 前與同價으로 不變이엇다 ㊂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二、七五

大邱閑散

休日을 압두고 一般은 消極態度이어서 實用必需側의 消極賣買로 場面은閑散을 繼續中이다 ㊂穀良三等三一、〇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一二、五〇

群山引締

日本內地側의 買氣減退에 加하야 鮮鐵輸送不振하야 一般은 消極態度이어서 商議도 杜絶되기 어렵다 ㊂銀坊主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三〇 一等白米一二、八〇

木浦下唱

出廻九桶으로 在存米의 全旣持로 買氣는 一般은 大口商談은 보이지안는다 ㊂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二、七〇

買氣俄然萎縮

日本內地米作第二回豫想의 第二次發表는 新潟縣外十三地方의分이 一千九百十一萬七千九百八十石으로 第一回豫想에比하면 二分三厘의減少로 東西市場이 幾分强味를添하야 多少의反高를示하나 그러나 這般阪地三十二圓八十錢臺와 當地三十圓二十錢臺를 限度로 第二回米作豫想의 百五十萬石減收說의 行動이라 할수잇스므로今回豫想의 減少率이 百萬石內外에 止한다하면 東西買進할 餘地가 업슬것으로 觀測하고잇다 卽第一次發表의 九厘減과 第二次의 二分三厘減은 槪算上約五十萬石의

東京株式 (市場)

◆朝取短期

	前寄	前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賣方	買方
朝新	九	[illegible]
大新	六	[illegible]
東新	九	[illegible]
日産	四	[illegible]
鐘新	七	[illegible]
日産新	五	[illegible]

海外經濟 十二日

[illegible]

銀行券 十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豆油粕·麥粉

◆阪神大豆粕◆ [illegible]
◆阪神豆油◆ [illegible]
◆日本粉麥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京城 益 金益證券 仁川 益康商賣

株式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組取◆ [illegible]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大阪人絹◆ [illegible]

生絲

◆各地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十二日)

▲白米(斗、單位錢)
▲紙物 (單位厘)
▲燃料(貫、單位錢)
▲物料(單位錢)
▲洋服(單位錢)
▲鐵物(單位錢)
▲藥料(單位錢)
▲木材(單位錢)
▲毛絲(單位錢)
▲人絹(尺、單位錢)
▲本綿(尺、單位錢)
▲牛皮(乾自斤單位錢)

[illegible]